

자활에세이
18번째 이야기

한걸음씩 더 나아가는 나의 꿈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에세이
18번째 이야기





축사

자활사업 참여자와 현장 종사자의 슬픔과 기쁨, 역경과 극복의 이야기를 담아 발간하는 수기집이 벌써 열여덟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기집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빛나는 자활사례를 보여준 우리 참여자들의 이야기 20편과 그 과정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분들, 공무원들의 이야기 7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7편에 담아 보내드린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하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공수기 대상 수상자인 윤진용씨는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 한부모인 어머니와 지적장애를 가진 누나를 대신해 어린 나이임에도 가정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윤진용씨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일자리 박람회, 교육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까지 취득하며 자립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여 미래에는 멋진 어른이 되겠다는 윤진용씨의 빛나는 꿈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수상자분들을 비롯해 부단한 노력으로 자립의 기회를 만드신 분들
에게 진심어린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자활사업이 구체적인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주신 사회복지 공무원과
자활 실무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도 자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이를 디딤돌 삼아 참여자분들께서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자활참여자들과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차례

제1부 성공수기

대상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곳 | 경기 윤진용 • 10

최우수상 네, 일합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 전남 정명숙 • 16

우수상 격려 속에 핀 꽃 | 부산 이만음 • 22
다시 시작합니다. | 제주 전태진 • 28
자활은 내 삶의 디딤돌 | 경기 민문화 • 32

입선 나의 하얀 도화지엔 이런 그림을.... | 전북 김경화 • 40
나의 희망. 나의 건강, 근로의 즐거움 | 경기 서영수 • 46
살 맛 나는 인생! | 부산 권오연 • 52
나의 새 희망 성동지역자활센터 | 서울 신기철 • 58
Dream-up! | 광주 신은총 • 64
희망은 내일을 꿈꾸게 한다 | 충남 전가희 • 70
성동구 “엄지척 자활사업”으로 엄지척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 서울 김상두 • 76
내 소원은 백만 원 | 광주 김명희 • 82
멈추지 않는 롤러코스터, 끝을 향해 나아가다 | 부산 한재원 • 90
나의 꿈에 대한 도전은 아직도 진행중(ing) | 경기 박필수 • 94
달리다 보면 길은 있습니다. | 대구 김설희 • 98
바닥을 쳤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다. | 경기 김흥복 • 104
마르지 않는 열정으로 쿠키를 굽다. | 부산 조옥진 • 110
나에게 찾아온 세 번의 기회, 희망을 노래하다 | 경기 김선미 • 116
나의 과거 - 자활- 현재와 미래 | 서울 김민재 • 122



제2부 공로수기

최우수상 위기를 기회로 | 광주 이미례 • 130

우수상 자활이 만들어내는 ‘함께’ 라는 가치 | 부산 한태욱 • 138

모두를 웃게 하는 주거복지 맥가이버 | 경기 김원철 • 146

우리는 함께 성장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 부산 이원희 • 152

입선 나의 인생, 자활로 우뚝 솟아오르다 | 부산 지종해 • 160

자활! 밝은 내일을 꿈꾸는 공동체 | 인천 이은정 • 166

내 마음에 꽃피네 | 광주 이해원 • 172



자활에세이 18번째 이야기
한걸음씩 더 나아가는 나의 꿈

제1부

성공수기



대상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곳

윤진용 경기



우리 아빠는 한국 사람, 우리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이혼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아서 크게 슬프거나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 이혼 이후로 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한국말이 서툰 엄마와 지적장애를 가진 1살 많은 누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을까, 어린 나이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항상 주눅이 들어있었다. 우리 엄마는 한국에 온지 20여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일터나 병원, 공공기관에서는 엄마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항상 나를 찾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과 어려운 질문들에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했다. 그래서인지 낯선 새로운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무서웠고, 대화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고, 소심했던 나는 학

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갔다. 지적장애를 가진 누나가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방과 후에 바로 집으로 가서 누나를 챙겼다. 엄마가 일이 끝나고 오실 때까지 나는 누나와 함께 밥을 챙겨먹고, 이 닦는 것을 도와주고, 누나가 혼자 하기 힘든 것들을 도우며 함께 놀았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렇게 어영부영 살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주변 사람들은 대학교 가고 하는데 나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뭘 해야 할까 고민했다. 내가 대학을 가기에는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한 것도 아니고 원하는 분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 형편으로는 대학 원서접수비용을 내는 것도 부담이었다. 그런 상황에 엄마가 자신이 일하고 있는 자활센터에 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하셨다. 그때 당시에는 자활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몰랐고, 일단 상담만 받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센터를 방문했다.

나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나와 처음 상담하신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첫 상담 내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빨개져서, 모든 질문에 ‘네’ 대답만 했다고 한다. 사실 자활센터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 질문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다만, 이 낯선 환경과 나에게 주는 관심이 부담스럽고, 내 생각을 묻는 다양한 질문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다. 이후 상담 선생님은 내가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셨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놀이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면서, 계속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 이 상황이 지금의 나의 시기에 당연하고 자연스러

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이런 내가 나의 흥미와 적성을 찾고, 진로를 고민해보며,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을 소개해 주셨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막연하면서도 작은 기대감이 생겼다. 그리고 사업단에 참여하기 전에 센터장님과 면담을 하였는데 면담 중 센터장님이 “행운은 운이 좋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렇게 나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자가 되었고, 처음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었다. 내 통장에 자활 급여로 130만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의 기분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나에게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 내가 번, 내 돈이라는 놀라움이 있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며, 담당 팀장님과 상담을 통해 청약통장,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여 적금을 시작했고, 처음으로 엄마에게 생활비라는 것을 드렸다.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 옷을 샀다. 지금까지 교복과 츄리닝 단벌로 살아왔던 내가 돈을 벌면 나를 위해 가장 하고 싶던 것이 ‘패셔니스타’가 되는 것이었다. 츄리닝을 벗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 쇼핑을 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찬 경험이었다. 또한 일을 하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나의 진로를 계속 고민했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일자리 박람회, 대학 탐방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체험 할 수 있었고, 그렇게 꽤 긴 고민 끝에 사회복지분야를 공부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사회복지 분야로

정한 계기는 외국인 우리 엄마, 장애를 가진 우리 누나,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올 있도록 도와주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때문이다. 나도 이제는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누군가에게 최소한이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 목표는 정했으나 목표 달성에 대한 계획 과정 수립에 막연함과 어려움을 느꼈는데 담당 팀장님과의 지속적인 상담과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아 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먼저는 담당팀장님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교육 과정을 소개해주셨고, 이 자격증 취득과정을 공부하며,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생애 최초 자격증 취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공부했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혹시 서울대학 갔을까, 나는 자랑스럽게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정말 기뻐고, 처음으로 성취감을 느꼈다. 이것을 시작으로 컴퓨터 활용능력 1, 2급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에 도전,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사이버 대학에 진학하였다. 오전에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옷 잘 입는 근로자로, 저녁에는 사회복지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원 없이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였으면 매우 부담이 되었을텐데, 내일배움카드와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으로 가능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함을 느끼고 지원해 준 것이니 더 성실하게 다녀야겠다는 마음가짐과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꼭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교육 과정에 임했다. 결과적으로는 직업상담사 2급에 이어,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컴퓨터 활용능력 1급은 현재 실기시험을 마친 상태로 결과가 11월 6일에 나온다.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니 굉장히 뿌듯했고 앞으로 도전해야 할 일이

있으면 쉬운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무조건 열심히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열심히 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크게 마음에 와 닿은 것,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은 사업단 내 정서 프로그램이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어릴 때부터 사람 눈도 못 마주치고 의사소통도 어려웠다. 그런데 사업단에서 진행한 여러 가지 정서 프로그램 (집단상담, 개인상담, 감정 파악) 등을 통해서 내 감정을 보다 더 헤아릴 수 있게 되었고, 표현하는 훈련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이 향상 되었다. 그 외에도 MBTI 검사, 흥미도 검사 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직무 분야에 연관성을 알아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하면서 처음에는 손님 응대도 낯설고 카페 업무도 어색했지만 담당 팀장님과 참여자분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천천히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카페 업무 말고도 편의점 사업단 등, 다른 사업단으로 실습을 한 경험도 나를 성장시키는 사회경험이 되었다.

나는 지금의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자활센터에 와서 나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공부하여 나의 목표에 한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가고, 멋진 어른이 되는 꿈을 꾀본다.



최우수상

네, 일합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정명숙 전남



날이 밝으려면 한 참이 남은 새벽 두 시, 이 시간은 제가 10년째 출근을 위해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겨우 세수만 하고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 사업장에 도착하면 두 시 삼십분 즈음...

같은 건물 2, 3층에 있는 대중목욕탕보다 먼저 가게문을 여는 웰빙도시락! 대형 솥에 오늘 점심 국 메뉴인 호박 된장국을 끓이기 위해 미리 썰어 둔 국 재료들을 구수한 된장을 푼 다시물에 듬뿍듬뿍 넣는 것으로 200여 곳이 넘는 사무실과 상가에 점심 식사용 반찬을 배달하기 위한 저와 '웰빙도시락'의 맛있는 하루가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십 이년 전....지금 이맘때였을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계절의 바뀔음을 알리고 있을 때 아이들의 책가방과 옷 몇 가지를 주섬주섬 챙겨서 여동생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 내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처절함으로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렇다고 두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울면 제 자식들도 따라 울테니까요...사랑으로 한 결혼이 불신과 무책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폭력과 공포로 바뀌고, 반복되는 생활고를 저와 두 아들은 더 이상 버텨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과 동시에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차가운 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집들 가운데 우리 세 식구가 들어갈 곳은 없다는 서러움.... 나 때문에 두 아들이 겪게 될 어려움... 왜 그렇게 모든 것이 슬프고 화가 나고, 지나 온 많은 시간들이 후회스럽던지요....

정말 힘들고 못견디게 괴로웠던 그 때.... 단 한 번도 찾아본 적, 믿어본 적없는 신을 마음속으로 간절하고 또 간절하게 부르게 되더군요.

제가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닦으면 되고, 아픔은 참으면 되고, 돈은 벌면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죽을 만큼 힘들어도 자식은 절대 포기하지 않듯이 저 또한 두 아들을 잘 키우는 것이 제가 숨을 쉬는 이유고 삶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거처를 마련한 뒤 며칠이 지났을까... 동생이 자활센터라는 곳을 얘기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찾아간 곳이 '전남여수지역자활센터'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뭔지, 차상위대상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동사무소에서 한부모 가정이라는 서류만 만들면 일자리를 준다 해서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일할 수 있다는 말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젊어서인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는 못하고 차상위계층이 되어 ‘전남여성지역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처음 참여하게 된 자활사업단은 여수 특산품인 갓김치와 다양한 김치를 담아서 판매하는 ‘웰빙돌산갓김치’라는 사업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비슷한 처지였기에 서로 아픔을 같이 할 수 있어 많은 위로가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업단에서 언니, 동생들과 함께 일하는 생활이 즐거워 아침마다 출근하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내가 일할 곳이 있다는게 너무 좋았고, 조금씩 나아질 내일을 기대하며 사업단과 관련된 모든 일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 찾아 적극적으로 하는 또 다른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참여하다가 쉽게 오지 않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웰빙도시락’이라는 자활기업을 창업하게 되었고 그 자활기업의 대표를 모든 것이 부족했던 저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잘해보겠다는 자신감과 책임감, 설렘으로 ‘웰빙도시락’의 문을 열었으나, 하면 할수록 뭐가 뭔지 모르겠고 매출이 쉬이 오르지 않으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내 자신이 부끄럽고, 옆친데 똥친격으로 같이 근무하는 언니들 역시 허둥지둥, 그 누구도 믿고 따를 수 없는 현실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를 믿고 같이 가게끔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요... 그래서 공동체 인원수와 관계없이 마음이 하나가 되자, 서로에 대해 신뢰

가 없다면 공동체라는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뻐하고 아파하고 서로의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1년, 2년, 3년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그 시절 시작을 같이 했던 언니들은 지금은 다 떠나고 없지만 ‘웰빙도시락’에 보석 같은 사람들이었음을 세월이 지나고 보니 깨닫게 됩니다.

몇 가지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눈이 자주 오지 않는 여수에 밤 사이 눈이 엄청 내렸을 때 다니는 차도 사람도 한 명 없는 새벽에 다 같이 출근하던 기억들, 태풍으로 비바람이 쳐도 한명도 결근 없이 출근해 도시락을 배달했던 기억들..

결식아동도시락 지원 사업을 맡아서 할 때는 주소만 가지고는 찾을 수도 없는 산꼭대기의 집들을 골목 골목 찾아 다니며 도시락을 배달했던 기억들, 1,000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큰 불교 행사에 도시락을 시간에 맞춰 납품 했어야 했는데 도시락 일부를 시간에 맞추지 못하고 배달을 못하게 될 뻔 했는데 자활센터 실장님, 담당 팀장님, 그리고 행사 관계자분들이 도와주셔서 겨우 배달을 마쳤을 때는 내 자신 스스로가 용서가 안 돼 눈물을 펄펄 쏟았던 기억들...

남들 눈에는 저희들이 바보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그때가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실수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기 때문입니다.

창업 초기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 사업부터 시작해서 행사 및 단체 도시락, 그

리고 현재 주요 사업 내용인 상가 반찬 배달을 10년이 넘도록 하면서 아무리 피곤해도 밑반찬 하나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그날 그날 만들었고, 내 가족이 먹는 것처럼 이익을 따지지 않고 좋은 재료와 좋은 양념을 아끼지 않았고 사업장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디서 어떤 누군가가 방문하더라도 ‘정말 깨끗하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저희의 진심이 통하고 인정받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활센터에서도 도와주시고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지역 내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웰빙 도시락’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도시락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와 주문을 다 받지 못했던 적도 있었을 정도니까요.

월급도 한 해, 한 해 오르고 매출도 꾸준히 오르고 올라 역대 매출도 달성하게 되니 마음이 뿌듯하고 자부심마저 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반찬을 만들다보니 그만큼 지출도 많아서 크게 수익이 나지는 않지만요...)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라고 말이죠.

문득 생각이 납니다. 큰 아들이 등교시간보다 항상 일찍 학교에 가서 어느날은 물어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등교하기 전 당구장 청소 1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에 간다면서 웃는 얼굴로 “엄마, 걱정마!” 이 한마디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하느도 쪼갤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잘살아야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학원 한 번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지만 두 아들 모두 공부도 곧 잘해 대학도 진학했고 군대도 다녀오고 지금은 직장인이 되었고, 드디어 제 품에서 독립도 했습니다.

집 없는 서러움에서도 벗어나 약간의 대출금은 남았지만 작은 아파트도 마련하였고, 시간 내 배달을 마치기 위해 구입한 스타렉스 차량의 대출금도 이제 조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속에 “초심”이라는 글자를 가슴에 담아두고 힘들고 속상하고 제 자신이 약해질 때면 십 이년 전 차가운 길 위에 서서 했던 다짐과 ‘웰빙도시락’ 창업할 때 가졌던 다짐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제 마음 스스로를 위로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는 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의 저처럼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이 지역자활센터의 도움을 받아 ‘네, 일합니다!’, ‘내일이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오후 세 시, 수거해 온 도시락 반찬통을 세척하고, 내일 나갈 반찬들의 재료 손질과 준비가 모두 끝난 시간...

사업장 이곳 저곳 조명을 끄고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두 시... 10년이 넘게 해 온 내 일을 하러 저는 어김없이 잠에서 깰 것입니다.

우수상

격려 속에 핀 꽃

이믿음 부산



| 격려 속에 핀 꽃

내 나이 12살, 초가를 저녁이었다. 배고팠던 나는 집 옆에 있던 곰장어 가게의 문을 열었다. 그때부터 나의 불행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가게 안에는 아버지와 친구 분이 계셨고 한 여자가 아버지와 마주 보며 앉아 있었다. 친구 분이 유흥주점들을 운영하는 중국인 여자를 소개해 준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을 나는 목격하고 말았다. 당시 어머니는 신경불안증을 앓고 계셨고 아버지는 고구마 장사를 하고 계셨다.

중1학년 때쯤, 어머니와 나는 수급자가 되었다. 다른 여자가 좋아 가족을 버린 아버지는 가끔씩 늦은 밤 집을 찾아와서 주무시곤 했다. 그때 어머니의 속이 까맣게 타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 것 같다. 등교 준비를 할 때쯤 그 여자와 깡패들은 아버지를 데려가기 위해 대문을 두드리고 담을 넘어 장독대

와 유리문을 깨부수었다. 집은 노출됐고 전신에 명품으로 둘러싼 중국인 사장은 깨진 유리를 밟으며 방으로 들어와 온갖 행패를 부렸다. 나의 등교 시간은 종종 이래왔다.

군 제대 후 7년 만에 원망과 미움을 묻어둔 채 아버지를 찾아갔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아버지라는 존재이기에 오늘까지도 연락하며 지낸다. 어머니는 2018년 겨울 어느 날 재혼을 하셨고, 나와 가구분리를 하여 나만 수급 유지를 하게 되었다.

I 출발선

2019년 6월 말, 구청에서 처음 상담을 받은 이후 전포동에 있는 부산진 지역 자활센터의 청년드림사업단으로 출근하였다.

처음에는 자활센터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중·장년 이상의 참여자가 대부분인데 청년들이 설자리는 있을까?

나의 진로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동료 청년들과 매일 자기계발을 하면서 아직 찾지 못한 우리의 자리를 찾기 위해 출발선에서 달릴 준비를 하며 몸을 풀고 있다.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면서 말이다. 그리고 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는 데 자활센터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많은 것을 도전하고 이뤄갔으면 좋겠다”라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말씀에 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도전...’

| 도전과 함성

생애 처음으로 취득한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격증! 첫 발을 뗐다. 자격증을 손에 거머쥐고 한참을 바라봤다. 자랑도 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조금의 흥분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도전하고 싶었고 이 또한 나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다. 기계설계산업기사이다.

이로써 나는 전문 자격증을 2개나 취득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이와 동시에 운전면허 1종 보통을 취득한 것이다. 하늘을 나는 듯했고 너무 기쁜 나머지 어머니와 함께 함성을 질렀다. 자려고 누웠지만 쉽게 잠을 이룰 수도 없었고 며칠 동안 부푼 마음으로 일상이 즐겁고 센터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문득 ‘도전하길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믿음이 힘들었지만 잘 했어” 나는 나에게 칭찬하였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경비 지원과 장소·시간 활용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은 자활센터 식구들에게 무한 감사함을 전한다.

| 사라져버린 기회

산업기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전국 3D 설계 공모전을 보게 되었다. 이 공모전은 나의 3D 창작품을 만드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투표수와 주최 회사의 평가를 받는 방식이었다. 공모 기간이 짧고 단 한 번의 대회 경험도 없는 나에게는 많은 고민이 되었다. 이력서에 추가할 내용이 필요하기도 했

지만 경험이 많은 누군가의 조언도 필요했다. 그런데 이에 알맞은 사람을 찾았다. 바로 청년팀의 큰 형이다.

한 번은, 큰 형에게 “공모전을 하려는데 이유 모를 걱정이 앞선다.”라고 고민을 말했더니 형은 “처음부터 걱정하지 마라. 도전하면 50%를 챙기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0%다 라고 하더라” 그 말이 내 머리를 때렸고.. 벨트에 머리를 기댄 채 창문을 보며 안도의 웃음을 지었다. 사실은, 형의 그 말이 처음엔 무책임하게 들렸지만 ‘난들 못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여러 날의 고민 끝에 타이어를 주제로 공기가 필요 없는 ‘미래형 타이어’를 만들기로 했다. 이런 나의 모습에 친구들은 하나같이 “그거 아냐? 어차피 우승은 딴 사람이다.”라며 비웃었지만, 나의 도전이 ‘0%’가 되는 게 싫었고 ‘그냥 해보는 거지 뭐’라고 나를 다독였다. 한 번은 형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어느새, ‘미래형 타이어’를 완성했고 큰 보람을 느꼈다. 주최 회사에 제출했고 이제 유튜브의 투표수와 회사의 평가만 남은 채 나는 결과를 기다렸다.

발표 당일 아침, 기다리고 기다리던 문자가 왔다. “OO 회사입니다. 전국 3D 공모전 투표 결과 1등이 되셨습니다. 대상 축하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노력 감사드립니다.”라는 문자였다. 게다가, 이노비즈 협회장, 대한건축사 협회장 상장 2개를 수여하고 꿈에서나 이루어 질만큼 큰 회사에 스카우트될 수도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대박!!

시상식 날 소감문을 준비하라는 주최 측의 안내로 들뜬 마음으로 준비했다. 뭐라고 말하지... 첫 소절을 어떻게 시작하지... 온갖 멋스러운 소감이 떠올랐지

만,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다.

“저 채용해 주세요”

하지만 이 무슨 날벼락인가?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식은 취소가 되었다.. 많은 기업의 대표들을 만날 수도 없게 되었다. 시상식뿐만 아니라 스카우트될 수도 있었던 기회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상장은 택배로 배송되었다. 나쁜 코로나 녀석!!

실망은 컸지만 부푼 마음만큼은 아직도 그대로이다.

난 또 컴활 2급과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였고, 다른 성격의 공모전에도 도전했다. 결과에 상관없이 도전으로 인한 나의 성장은 매일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누구든 삶에서 크고 작은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늘 선택과 용기가 필요하다. 특히, 나의 변화까지 수반되는 것은 더욱더 그렇다. 다행히 나는 스스로 늘 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 포기 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코로나의 피해자는 나뿐만이 아니다. 요즘 아침 뉴스를 볼 때면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이 극히 심해진다는 말 뿐이다. 수많은 가게들은 문을 닫고 사람들은 입을 막고.. 수많은 아버지들이 눈을 감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나 또한 계획하고 바라왔던 3D 설계직 일자리도 줄었고 경쟁률도 더 치열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겠다는 다짐의 결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겪기도 한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내가 자활센터 청년사업단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마음이 가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

확실한 건 현재 자활센터에서 지금까지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그 도전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내가 믿는 대로 갈 것이며, 사회로 나아가 자립을 하고 나의 정체를 찾아갈 것이다.

비록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지만 그래도 나의 목표는 뚜렷하다. 그 목표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우수상

다시 시작합니다.

전태진 제주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다가 제주도로 저와 딸(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동창인 지인과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동창인 지인과 함께 파생상품 해외선물을 거래를 하던 중 함께 일하던 지인이 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잠적하면서부터 무일푼이 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니 딸아이는 단기청소년쉼터에 생활하게 되었고 5세부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아이가 청소년 쉼터로 갔을 때, 딸아이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에 생을 마감하려고까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먹는 날보다 못 먹는 날이 많아 체력은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너무나 처참한 상황에 우울증과 머리에 전기가 흐르듯 찌릿찌릿하고 가슴이 뛰고 환상과 환청에 시달리던 때, 딸아이가 머물고 있는 단기청소년쉼터의 상담사의 권유로 거주

지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서류 작성 후 2019년 6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으며, 시청 사회복지과 담당자 분의 소개로 2019년 7월초경 지역자활센터에서 게이트웨이 교육 및 상담을 하는 담당자를 소개 받았습니다.

2019년 8월에 2주 9월에 2주 게이트웨이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쯤, 2016년 11월부터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으며 건물주는 9월 27일까지 건물을 명도하라는 지방법원 건물명도 소송을 하였습니다.

건물 명도에 대해서 게이트웨이 담당자와 상담을 하였는데 갑작스럽게 주거를 잃게 될 위기에 놓인 가구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며 주거복지센터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지원이 안되면 무일푼에 거리로 나앉게 될 처지에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임차 보증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상담사님이 방문하시어 설문조사를 하시었고, 2019년 9월 24일 주거복지센터에 주거안정비 지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이사비용이 없어서 게이트웨이 담당자와 다시 상담 하니 지역자활센터협회에서 이사비용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의 주거안정비 지원과 지역자활센터협회의 이사비용 지원을 통해 건물주의 건물명도 이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9월 초경 지역자활센터 게이트웨이에서 교육을 받던 중 환상과 환청이 들리고 가슴이 뛰고 머리에 전기가 흐르듯 찌릿찌릿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이상한 제 모습을 보고 게이트웨이 담당자는 제 몸이 정상이 아닌걸 보고 보건

소 정신과 예약을 하시고 보건소 파견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일반병원으로 다니게 되었으며 제가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센터에 자활사례관리담당자는 매주 월요일 아침, 저와 함께 병원에 동행하여 저의 건강 상태를 병원원장님게 물어보시고 지금도 수시로 저의 건강을 체크 해 주십니다.

게이트웨이에서 2019년 9월 30일까지 교육을 마치고 2019년 10월 1일부터 자활근로사업단인 업바이크사업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자전거를 폐기 또는 재생하여 자전거가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는 곳 입니다.

업바이크사업단에 근무를 하면서 자활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거주하고 있는 곳에 월세를 지출하고, 딸아이 학원비를 지출하고 딸에게 용돈도 주며 살고 있으며 일상적인 근무 하면서 생활에 안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 7월경 센터에서 게이트웨이 담당자와 처음 미팅한 시절이 주마등처럼 생각납니다. 작년에 우울증에 죽을 고비에, 딸아이는 단기 쉼터에, 거주하는 곳은 명도소송으로 무일푼으로 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에 있음에도, 자괴감에 주민센터에 가서 문의 할까 말까, 시청 직원 추천으로 지역자활센터에 갈까 말까, 많이 망설이고 또 많이 망설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처음 상담하는 날, 이런 저를 보고 저의 마음을 꿰뚫어보듯이 저의 고민을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았다.’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면 된다고 희망을 주시고 앞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시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힘을 실어주셔서 힘이 됩니다.

문화누리 카드가 나왔다고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문화누리 카드 담당자에게 카드를 수령하고, 기초수급담당자에게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딸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고 인사차 들렸는데 기초수급담당자 분이 저를 못 알아보시고 누구

시냐고 되물으시더라고요. 약 20일 만에 체중이 4키로 이상 저의 몸무게가 붙어 나서 기초수급담당자분이 저를 못 알아 본신 겁니다.

‘지금은 지역자활센터 업바이크 사업단에서도 안정이 되고, 게이트웨이 담당자의 추천에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비와 이사비용을 지원 받아 주거도 안정이 되고, 자활사례관리담당자가 저의 건강을 수시로 체크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인가요 너무나 많은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저와 딸아이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것을 평생 잊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자활근로 생활을 열심히 하고 추후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돈을 조금 씩이라도 모아서 저와 비슷한 분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했고 딸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로 보답한다고 서로서로 약속했습니다.

딸아이 5세 때 엄마 없는 딸아이 잘 키워보자며 살아왔는데, 제가 생활고에 힘 드는 것은 참을 수 있으나 딸아이를 단기 여자 쉼터에 보내고 딸아이와 헤어져 있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딸아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고요, 저의 힘든 시절을 지역자활센터에서 청산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저를 뒤돌아 볼 때, 지역자활센터에 방문하지 못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 해 봅니다. 센터장님 이하 게이트웨이 담당자, 자활사례관리 담당자, 업바이크 사업단 담당자등등 수놓음에 근무 하고 계시는 팀장님들 너무 너무 감사 합니다.

센터에 일을 하기위해 출근하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나를 보며, ‘오늘도 하나의 문제를 풀었네, 그래 내일도 하나, 모레도 하나, 하나씩 풀어나가자’ 마음으로 다짐하고, 사랑하는 딸과 안정된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수상

자활은 내 삶의 디딤돌

민문희 경기



2014년 1월, 처음 들어보는 ‘자활’이라는 단어는 마치 나에게,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초라해진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며 우울해하는 내 마음을 치유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의 ‘재활’처럼 들렸다.

2020년 현재, 6년의 자활의 삶을 잘 겪어낸 나는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6시 30분 알람을 들으며 책상 앞에서 노트북을 켜다. 하루의 시작을 재고 파악과 상품발주로….

하루의 마감을 매출 정산서를 보는 자활기업 편의점 점주이다.

| 사업체 부도로 남편 구속

2013년 봄, 남편이 사업체 부도로 인해 상품 대금을 갚지 못해 법정구속 되었다는 전화 한 통은 나의 숨조차 멈추게 해 버렸다. 큰아들과 서울 구치소로 남편

면회하러 가면서 너무도 무서웠다. 결혼 후 20년을 넘게 전업주부로만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겪지 않았던 나는 남편 없이 대학원에 다니는 큰아들과 고3 작은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고 이렇게 만든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기만 했다. 하지만 막상 남편을 면회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편 또한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지를 생각하며 울면서 집으로 왔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동안 모든 카드는 연체로 묶이고 거래처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으며, 얼마 남지 않은 통장 잔액은 압류가 되었고 집도 경매로 처분되면서 이사를 해야 했다. 큰아들은 대전에서 대학원을 자퇴하고 그곳에서 취업하였다. 고3인 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사실 그대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일단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끔 했다. 남편은 수원 구치소로 이감됐고 큰아들이 월급 일부를 보내왔고 작은아들은 다행히 열심히 공부해주고 있었으며, 경력이 없는 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음식 만드는 것에는 자신이 있어서 반찬가게에 시간제로 일할 수 있었다. 이틀에 한 번씩 아침 일찍 수원 구치소로 남편 면회하러 갔다. 오래 있지는 않을 거라는 남편의 말을 믿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대화를 나누면서 적은 영치금을 넣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나는 그저 소리 없는 눈물을 닦아야 했다. 출소하였을 때 남편은 내가 넣어준 적은 영치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것을 알았을 땐 정말로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다.

그해 12월 정말로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우리 가족이 완전체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한없이 눈물이 흘렀다. 남편은 그동안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8킬로 이상 빠진 체중과 혈압약 복용, 공황장애로 웅크

리고 자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미어졌다. 남편을 쉬게 해 주고 싶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부재로 인한 가족의 힘든 상황을 다시 만들지 않겠다고 서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만만치 않았다. 이미 사회에 자신이 설 자리가 좁아져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주민센터에서 긴급지원금과 공공근로 일자리를 알선해 주면서 사회복지 담당자는 우리를 한시적 차상위로 신청을 해 주었고, 성남 지역자활센터를 소개했다.

| 자활센터 생활은 내 마음 치유의 과정

센터 담당자의 전화를 받고 그렇게 나는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준 성남지역 자활센터를 가게 된다.

차상위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작성과 상담을 하면서 북받치는 울음을 참느라 떨리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위로하던 류○○실장님과의 만남은 내 인생의 좌표를 다시 잡게 해 주었다.

남편과 나는 그렇게 자활센터 생활에 젖기 시작했고, 게이트웨이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교육을 받는 동안 남편과 나는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교육받는 사람 중에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힘든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남편과 나는 교육받는 동안 내내 센터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마치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곳에 놓여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우리 부부의 현실을 부정했었다. “내가 왜?”라는 생각과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으로 다른 동료들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 동안 같이 교육받으면서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나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조금이나마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나의 이야기도 조금씩 하면서 동료 의식도 생겼다. 무사히 교육을 마치고 남편은 콩두부 사업단으로 나는 유통 사업단인 울동공원 매점에서 일하기로 했다. 실무자 선생님은 나에게 공원 매점을 추천하며, 4계절 공원에서 일도 하며 마음을 힐링할 수 있다 했다.

그렇게 나는 온전히 실무자 선생님 말을 믿고, 2014년 3월 나는 울동공원 매점으로 출근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해 작은아들은 대학에 입학하였지만, 등록금 때문에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차상위확인서 한 장으로 아들의 등록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매점으로 첫 출근 하는 날, 아직은 꽃샘추위지만 겨울을 지난 나무에 어느덧 새순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그래 한번 해 보자! 난 취업을 한 거야.”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그곳은 8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상품 진열, 청소, 상품 판매를 하고 있었다. 선배 언니들로부터 업무 내용을 듣고 배우면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기 시작했다. 배우다 보니 재미가 있었다. 처음에는 고객 응대가 어려워서 인사도 잘하지 못했지만, 점점 웃음을 찾아가는 나의 모습이 보였다. 매장정리에 집중하다 보니 잡념도 떨쳐 버리게 되었다. 말 그대로 근무지가 공원이자 보니 근무환경이 좋았다.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우울감과 무력감도 사그러지면서 점차 자신감도 생기고 함께하는 동료들과 많은 이야기도 서로 나누면서 힘든 일들을 의논하고 도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근무지와 집이 가깝다 보니 좀 더 일찍 출근하게 되고 이 일이 나의 적성에 맞는지 재미도 있어서 열심히 배우고 익혔다. 그러다 사업단 대표를 맡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상품의 유통기간이나 상품의 매입원가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윤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매출 증대에 대해 팀원들과 의논도 하게 되면서 유통 사업에 관심이 커지게 되었으며 창업에 대한 희망도 꿈꾸게 되었다. 큰돈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수입도 생겼고 건강하기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남편도 나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나는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휴학으로 끝내서 항상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그 말을 기억하는 남편은 작은아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당신도 다시 공부 시작하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 약속을 지킨다면서 2014년도 11월에 남편이 이제 당신 다시 공부 하라면서 일반 대학은 지금 상황에서는 못 가지만 방송통신대는 등록금도 비싸지 않고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일하면서 다닐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해 보고 싶었다. 차상위라 등록금이 무료였다. 교육학과에 입학했다. 너무 재미있었다. 일도 하고 공부도 하느라 잠도 부족했지만 내 삶이 새로운 방향을 잡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했고 내가 몰랐던 사회복지에 대한 공금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게 했고 배움에 대한 갈망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따게 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다시 생활과학과에 편입해서 올해 졸업을 준비하고 있다.

| 자활이 내어준 디딤돌을 밟고 시작한 새 출발

2016년 8월 내 인생의 또 한 번의 도전이 시작되었다. 창업에 뜻이 있었던 나에게 기회가 온 것이다. 그동안의 상담을 통해서도 창업에 대한 나의 의지를 확인하고 계셨던 양○○팀장님의 도움으로 창업설명회를 다니고 창업박람회를 다니면서 창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사업계획안을 만들면서 촉박한 시간을 쪼개 가

면서 드디어 나와 같은 사업단 동료인 김○○씨와 둘이서 자활기업 다움을 만들고 CU수정남로점을 8월 30일 오픈하게 되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아르바이트 없이 둘이서 24시간을 교대근무로 일했다. 유통 사업단 전원이 3년 동안 열심히 적립한 돈으로 창업한 자금이기때문에 꼭 잘 해내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몇 달 동안은 긴장으로 버티느라 힘들어도 힘든지도 몰랐다. 창업하면서 한시적 차상위였던 나는 탈수급이 되었다. 우리는 자활기업답게 자신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일 때마다 센터에서 관장님과 직원들이 힘을 주었고 도움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장 절실히 알게 되었다. 같이 하는 동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힘들면 동료도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의 동료와 나는 유통 사업단에서부터 함께해서 8년째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처음 창업의 목표가 1인 1점포를 목표로 정했었다. 그 목표를 위해 이익의 일부를 적립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우리 점포가 있는 신흥3동 주민센터에 적은 금액이지만 기부금도 내고 있다. 내년에는 좀 더 금액을 늘려 보려고 한다. 센터에서 편의점 사업단을 만들었을 때 주민들 실습 교육도 기꺼이 우리 점포에서 진행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사업단에서 시작해서 창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도 창업의 희망을 주고 싶었다. 또한 직원으로 수급자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다. 공동부 사업단에 있던 남편은 그곳을 나와 복지센터 버스 운전, 도시락 배송,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으며, 60살이 넘는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것에 항상 감사하며, 우리에게

게 성남자활은 우리를 다시 살 수 있게 해 주었고 겸손함을 가르쳐 준 곳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제 창업한 지 만 4년이 되었으며 추가 장려금까지 받기로 하고, 본사와 재계약을 했다. 이제 우리가 처음 기업의 목표로 정했던 1인 1점포를 준비하려고 한다. 비록 남들처럼 여유로운 시간은 없고 아르바이트생 대신 근무해야 하는 날도 있고 명절 때도 출근해야 하는 날도 있어 힘든 날도 있지만,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

2013년 자활의 단어를 재활로 들었던 나를 돌아보며 내 삶의 디딤돌이 되어 준 성남지역자활센터와의 소중한 만남을 잊지 않으며 내가 받은 혜택과 지원을 잊지 않고 나 또한 누군가의 디딤돌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 보려 한다.



입선

나의 하얀 도화지엔 이런 그림을....

김경화 전북



내 나이 마흔, 늦둥이 막내가 태어났을 때는 더없이 기쁜 날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막내로 인해 새롭고 더없이 화목하게 살았죠. 가족 모두가 막내를 신기해하며 바라보던 그때를 생각하면 그립고 웃음 짓게도 하지만 잠시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막내의 희귀병이 발견되면서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거든요.

2014년 우리는 어린 4남매와 남원시 아영면이란 곳에 귀농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반대했지만 남편의 간절한 바람에 이끌려 우리는 이곳 남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지으면서 이웃도 많이 알게 되고 포도 키우는 것에 재미를 느끼면서 점차 농촌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인심 좋고 평화로워 정도 들고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포도, 감자, 배추, 상추 등 처음 해보는 농사일은 힘들기도 했지만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재

미도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나도 그렇게 점점 시골 아낙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두 돌이 되어도 몸을 가누기 힘들고 표현도 적어지고 웃음소리도 점점 줄었습니다. 세 남매나 조카들 보면 아픈 아이들이 없었기에 그냥 발달이 좀 늦는 줄 알았습니다.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여러 번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알게 된 막내딸의 병명은 미토콘드리아 근병증... 생소하고 처음 듣는 병이었습니다. 희귀난치병이라고? 희귀난치병이란 완치 약이 없으므로 희귀난치라고 합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단어,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멍하기만 했습니다. 믿기지도 않았고 인정하기도 싫었고 교수님은 설명하고 있었지만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닐 거라고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아도 너무 절망적이었고 앞이 너무 캄캄했습니다. 너무 울어서인지 눈물도 안 나왔죠. 세상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그 순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이런 막내와 함께 재활치료를 받으며 병원 생활한 지 7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매일 8~9가지 약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고 있지만 속도만 느릴 뿐 퇴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금만 소홀히 했다가는 면역력이 떨어져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어 얼음처럼 차갑고, 심장에 무리가 가서 터질 것처럼 심장이 빨리 뛰어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그런 막내딸을 안고 자야 합니다.

비록 가날프고 위태롭지만 그래도 어여쁜 우리의 딸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건강했던 제 몸도 오랜 병수발에 지쳤는지 허리와 손목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 역시 재활치료를 위해 입퇴원을 반복하다 보니 아이를 돌보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남편과 역할을 바꾸었습니다. 그 덕분에 병수발은 좀 나아졌지만 이제 남편이 집안일에 매달리다 보니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농사는 이미 접었고 이젠 엄마인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취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식당에 취업했지만 2020년초 코로나 사태로 1년 만에 일하던 식당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쉬는 동안에 무언가 준비해야겠다는 각오로 그동안 너무나 하고 싶었던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나름 노력을 해도 어영부영 반년을 쉬다 보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이 둘은 대학교에 셋째아이는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빚도 늘고 점점 막막해지는 날이었습니다. 대학생인 아이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아무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나 자신이 초라해지고 미안했습니다. 여기저기 취업의 기회는 있었지만 교통 편이나 내 건강 여건에 일할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2~3개월을 버티던 어느 날 남원지역자활센터 직원의 전화를 받고 상담에 응했습니다. 나에게 맞는 취업 조건을 찾기 어려웠던 터라 혹시 내가 할 수 없을까 두려운 마음에 기대반 걱정반이었지만 다행히 취업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내가 취업하게 된 곳은 자활사업단 “월면가”입니다. 이 곳은 자활센터와 협약했다는 체인점으로 베트남 쌀국수를 주 메뉴로 하는 깔끔한 식당입니다. 거기에

카페까지 겸한 시설이기 때문에 나는 그 동안 꿈꿔왔던 소박한 희망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나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까지 했습니다.

사실 지난 2020. 9월 오픈식 때부터 정신없이 바쁘고 서툴러서 실수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동료들끼리도 적응이 안 되어 예민해지고 서로 서로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힘들 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본사 셰프님께 교육받은 것 기억을 되새기며 내 스타일 버리고 교육받은 그대로 나가려 노력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고객들도 알아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고 요령도 생기고 고객들 마음도 읽을 수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점이 불편한지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개선하려 노력합니다. 또 맛있다고 감탄하고,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 입맛의 차이로 쓴소리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에게도 배울 점을 찾아봅니다.

입맛의 차이는 있으니 그분들도 존중하고, 고객의 쓴소리가 약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칠 점이나 반성할 점도 찾아봅니다. 나에게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귀한 고객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요즘 하루하루 가슴 설레는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활급여에 매출 수입금 인센티브까지 주어져 가정적으로는 생활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이런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합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이 모든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한 것은 같이 일한 동료들이

있습니다. 적응 시기에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함께할 동료가 없었다면 중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또 앞에서나 뒤에서 큰 힘이 되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지역자활센터, 특히나 창업 교육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통솔력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므로 자립할 기회가 주어졌음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나의 작은 소망은 꼭 성공적으로 자립해서 경제적인 안정도 되찾고 이러한 정책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남원시에 제가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사례를 통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남원시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 주는지 남원이 살만하고 희망이 보이는 곳,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남원이라는 것.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꿈을 꾸게 되었고, 앞으로의 희망적인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젠 내 삶의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려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웃고 일하며, 힘든 시간도 같이하고 서로 격려하며 소통하는 그림.

이곳이 모범적으로 남원시에 좋은 사례가 되어 오픈식 때 뵈었던 시장님을 또한 번 볼 수 있는 그림.

정성, 맛, 친절, 청결하게 하면 고객들도 알아주고 또 찾아 주신다는 믿음의 그림.

열심히만 하면 나의 노력의 결과는 있을 거라는 그림.

큰 도시로 나가는 청년들에게도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라고! 기회를 잡으라고!

전 이제 요즘 또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욕실이 좁아 장애 욕조 의자 사용도 안 되어 씻을 때마다 힘들어하던 막내.

시골집이 추워 심장에 무리가 가서 경기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휠체어 사용도 힘든 집.

경제적인 안정도 되찾아 욕실 넓고 편한 집을 짓는 그림.

하루빨리 치료약이 나와서 막내가 완치되어 걷고 뛰는 그림.

가족 모두가 매일 행복한 그림.

하얀 도화지 위에 이런 그림들을 그려봅니다.

지금 이것이 내 삶의 또 다른 도전입니다.

매일 설레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긍정적인 자세로 착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나아가자!

어두움 뒤에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해지자!

꿈꾸는 자에게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 자신에게 소리쳐 봅니다.

오늘도 파이팅!!!

입선

나의 희망. 나의 건강, 근로의 즐거움

서영수 경기



| 어둡고 추우며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저는 부모님의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나 넉넉하지는 않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하여 결혼도 하고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어머니의 도움과 저축 등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도 구입 하였고 회사의 재무와 인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며 일반 월급쟁이처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입·퇴사하며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를 받아 1989년도에 종합건설회사 및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하여 예전 직장과 비슷한 업무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회사 상사의 호출이 있어 전무실에 들어가 보니 회사의 당좌자금을 막아야 한다며 회사에서 발행한 종이 약속어음(3천만 원)을 주면서 3부이자를 선공제하고 나머지를 당좌계좌에 넣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다. 그 부탁이 2년 이상 계속되어 어쩔 수 없이 모아 놓은 자금을 소진하고도 부족하여 친인척, 아는 지인들에게 어렵게 부탁하며 회사의 운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1년 가을 즈음에 결국 최종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의 몸 상태는 체중이 20kg 이상 빠지며 갑상선 항진증,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몸은 급격히 쇠약해지며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몸은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을 느끼며 무기력해져만 갔고 수입의 감소와 부모님 부양 등의 문제로 처와의 갈등과 다툼으로 처에게 2000년 이혼을 당하였습니다. 어음 때문에 돈을 차입한 지인과의 소송 등으로 변호사도 구하지 못하고 홀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추우며 앞이 보이지 않는 긴 어둠의 터널을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 성남지역자활센터와의 만남

그렇게 혼자라고 느끼며 아파트 등 모든 것을 처분하고 채무를 정리하여 아내와 똑같이 나누고 나니 나에게 남은 것은 3천만 원 정도 되었으며 그 돈으로 간신히 내 몸 하나 뉘 울 수 있는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향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자 예전과 비슷한 업종의 회사의 관리책임자로 입사를 하였으나 갑상선 항진증으로 몸이 쉽게 피로함을 느끼며 몸져눅기를 반복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동사무소의 도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이 되었고 몸이 허약해 처음은 보약을 먹으면서 몸을 추스르고자 했으나 이 역시 도움이 되지 않았고 나중에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아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으니 차츰 몸무게가 정상적

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자신감이 생겨 아는 지인의 회사를 방문하여 주 3일 정도 근무하면서 비공식적인 수입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구청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태조사를 나와 나의 생활과 몸 건강 상태를 살피던 공무원은 근로하며 돈 벌 생각이 있느냐고 제의를 하였고 나는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싶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변하게 해 준 성남지역자활센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센터에서 자활근로를 진행하는 유통 사업단에서 자활근로를 시작하였고 운중동 도서관 안의 매점 근무를 시작으로 율동공원 매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매점에서 근무하면서 나는 특히 고객을 상대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여름에는 생수 20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2개씩 들어서 냉장고 가득 채우는 등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라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으나 센터에서 그런 어려운 점을 알고 스트레스 완화 교육과 근로 의욕 증진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주어 스트레스가 완화되었고 고객 응대를 어려워하는 우리 사업단을 위해 고객 응대 CS 교육을 진행해 주어 나와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은 고객들에게 더 친절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이 올라갈수록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삶의 생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율동 매점에서 1년여 근무하던 중 자활센터 팀장님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편의점을 창업하는 것이 어떻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의 내가 했던 일을 생각해보니 재정과 인사관리, 자금관리, 회계 관리, 계약 등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에 자신이 있어 동료와 같이 자활기업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 기존에 있는 편의점을 인수하여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

다 보니 창업 한지 어언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 근로의 즐거움

창업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으면서 이제 다시 세상과의 소통을 시작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록 센터에서 개점을 도와준 매장이지만 매출 관리, 아르바이트 관리 등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센터와의 유대관계가 있어 우리만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도움도 요청하기도 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이 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제품 발주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동네 사람들이 주로 찾는 제품은 무엇인지를 하나씩 알아가면서 다시 세상과 융화되어 있었습니다.

손님을 성의껏 진심으로 상대하며 손님이 좋은 상품을 찾지 못하면 찾아서 추천해드리고 항상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니 기존에 있었던 편의점의 매출에 비해 30% 정도 향상이 되었고 규칙적인 일과 생활로 인해 내 몸 상태도 더 나쁘지 않고 현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준 센터에게 나도 도움이 되고 싶어 센터에서 사업단으로 편의점을 개점한다고 할 때 사업단에 참여할 주민을 우리 매장으로 초대하여 포스 교육과 발주하는 법, 물건 정리하는 법 등 사업단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가 종료된 참여자 중 취업으로 고민하는 주민 선생님을 우리 기업으로 취업시켜 일자리 제공도 하였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해서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동안 받은 월급에서

조금씩 모아 전세 3,000만 원의 집을 떠나 전세 6,500만 원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자활기업에 참여한 두 명의 인건비와 주말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지급하고 난 후 수익을 조금씩 저축하며 운영비 외 쓸모없는 지출을 통제하며 적립한 금액으로 우리의 목표인 1인 1점포를 가지는 것이 마지막 바람입니다. 끝으로 저에게 근로의 기쁨을 주고 항상 따뜻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시는 성남지역자활센터 관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입선

살 맛 나는 인생!

권오연 부산



준비되지 못한 이른 결혼생활과 채무, 경제 문제로 나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고 2005년 홀로서기를 해야만 했다. 전업주부로만 살아왔기에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졌다. 짧은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 용역회사 청소일, 마트 물건진열, 식당서빙 여러 가지 일을 하였지만 생각보다 잘 적응하지 못하여 오래 일 할 수 없었다. 그래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아 구인 광고를 보고서 몇 번을 환승하고 찾아 간 곳은 학원이었다. 교통은 불편했지만 원하는 근무시간 대에 원아들의 오후 간식을 만들어주고 방과 후 차량 하원을 시켜주는 일이었다. 급여는 작지만 말일 날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입이라서 근근이 생활은 할 수가 있었다.

| 자활근로를 시작하다

2015년 어느 주일 오후 예배 후 로비에서 한 집사님을 통해서 사상지역자활센터에 가면 취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 곳을 찾아 갔다. 사업단이 여러 개 있었다. 담당자가 전에 하던 일이 뭐냐고 물으셔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일을 했다고 하니, 학교에서 장애아동을 돌보는 장애통합교육실무원-사랑의 교실사업단에서 일하시면 좋겠다고 하셨다.

모 초등학교에 배치를 받았고 나만 잘하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생각에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시작했다. 조금은 소심하고 진지한 성격인 나는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살피고 아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다. 일반 아동과 다름에 능숙해야 했고 장애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행동이 달랐기에 좀 더 세밀한 케어가 필요했다. 전문성이 필요했기에 특수아동지도사 1급자격증을 취득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유형에 따라 대처능력과 소통이 중요했으므로 무엇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했고 사상지역자활센터에서 이를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학교현장에서 장애아동에게 일어난 문제행동에 대해 수시로 수첩에 적어놓고 매 달 월례회의 때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피드백도 받으며 더 잘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곤 했다. 학교에서 일주일은 왜 그리 빨리 지나가는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월은 고장도 없는 것 같다.

지금도 방과 후 사라진 아이를 찾아서 숨이 멎도록 찾아다녔던 그날 일은 잊을 수가 없다. 학교 인근 파출소에 신고도 하고 방송실에 가서 방송도 하고 여기 저기 찾아다녀 끝내 아이를 찾았다. 직원화장실에서 옷을 다 벗고 세면대에 옷

을 다 넣어 놓고 침범침범 물장난을 하고 있는 아이를 발견한 행정실 직원도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다고 한다. 그제야 숨을 쉴 수 가 있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은 얼마나 탔는지 모른다. 놀란 가슴을 몇 번이고 쓸어 내렸다. 그렇게 무사히 아이를 부모님에게 안겨드릴 수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조금이나마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며 가치 있는 삶을 살기위해서 이 일은 나에겐 보람이고 행복이었다. 순수한 아이들을 볼 때면 손에 쥔 것은 없지만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았다.

| 첫 번째 도전

자활사업단에 참여한지 1년이 지나고 5월초 목돈마련을 위해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였고 적립금을 전액 수령을 위해서 5년 뒤에는 취업이든 창업이든 준비를 해야만 했다.

나는 특수교육실무원 취업을 목표로 하였고 이 일을 계속하면 취업할 때 가산점수가 붙는다고도 하여 배우는 자세로 성실히 근무했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고 사상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야간학교를 지원하였다.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저녁에는 수업강의를 들으러 일주일에 4번씩 대학교 강당으로 향했다. 대학교 캠퍼스를 한번 밟아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기회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어 힘든 생활이었지만 늘 설렘이 함께했다.

그렇게 2년의 학위과정을 수료했고 교수님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빛나는 졸업식을 맞이하게 되었다. 마침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실무원 공고가 있어 응시를

하였지만 나보다 경력과 자격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 일선에서 일하는 실무원들이 포화상태라 자리도 없거니와 점점 학교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였다. 두 번의 응시와 낙오로 그 길은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 두 번째 도전

자활사업에 참여한지도 어느새 3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사업단에서 연말이 되면 상담을 한다. 취업을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다.

커피의 ‘커’자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다른 업종보다 창업의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같은 사업단에서 일했던 동료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용기가 났다. 나는 항상 환절기, 기온 차에 반응하는 만성질환인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을 한다. 음료를 만들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서비스직종이고 위생적으로 청결해야 하는 곳이었기에 우선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내 미래를 위해 2018년 1월 3일 커피사업단으로 첫 출근을 하였다.

커피머신 작동법, 포스기 다루는 일, 스팀 뽑는 일 등 생전 처음 접해보는 새로운 일에 많이도 떨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점점 손에 익으니 재미가 있었고 바리스타자격증에도 관심이 생겼다. 커피사업단에서 근무한지 8개월 만에 바리스타 학원에 다니며 커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다. 처음 바리스타 실기시험을 치던 날, 에스프레소 추출에서 시간 초과로 낙오되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아까워 바로 자비로 재시험을 접수하고 시험 당일 날 부산여자대학교 시험장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역시나 긴장되고 떨렸다. 그렇지만 꼭 붙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응했다. 커피머신이 달라서 스위치를 꼭 누르지 않았기에 커피가 추출

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다시 한 번 원두를 받고 커피머신에 장착하고 에스프레소 4잔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다음 동작을 끝까지 완수하고 인사하고 나오니 시원섭섭하였다. 2주 뒤 웹 발신으로 합격통보가 왔던 날 얼마나 기쁘던지 나 자신에게 칭찬과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고 자랑도 스스로없이 했던 것 같다.

| 창업을 준비하다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 자활을 꿈꾸지만 성향이 정반대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여 일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다른 동료들은 싸움도 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나는 그들과 함께 창업을 준비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전념했다.

마침내 동갑내기 셋이서 창업을하기로 결심하고 필요한 준비에 들어갔다. 아무것도 모를 때가 오히려 담담해질 수 있는 것 같다. 지금서 생각하면 알면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창업이라는 것은 그만큼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템, 주 메뉴, 상가물색, 집기류구입 등 너무 생각할 것이 많아 후회하면서 괜히 시작했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센터 팀장님들의 세심한 조언과 도움으로 조금씩 무언가 잡혀가는 것 같았다.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러 가서도 막히는 것이 왜 이리 많던지 내일로 미뤄질까 걱정하며 창구에서 기다렸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여러 사람들의 노고와 수고가 없었다면 창업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 살 맛 나는 인생!

오늘도 주 메뉴인 요거트와 수제우유가 효자메뉴가 되도록 메뉴개발과 맛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매출전략과 운영에 대해서 세 명이서 분담하고 질 좋은 음료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주변상권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경영전략과 신메뉴 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

자활기업 「카페 요거당」이 탄탄대로 자리매김 하기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가려 한다. 10월에는 내일키움통장 지원금을 전액 수령하여 채무도 상환하고 임대 아파트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니 마음이 홀가분하고, 채무 갚는 일이 없으니 통장에 잔고가 쌓여 살 맛이 난다.

“인생은 60세부터라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입선

나의 새 희망 성동지역자활센터

신기철 서울



“우드득”

아 ~ 순간 무릎에 엄청난 충격과 통증이 왔다.

2018년 여름 유난히도 더운 곤지암에서 신축 2층집을 공사 하면서 마지막으로 창고 하나만 만들어 달라는 건축주의 부탁으로 지붕을 얹을 철재 사각기둥을 장비 없이 사람의 힘으로 하다 그만 실수로 떨어뜨려 무릎에 엄청난 충격이 왔다. 12월도 거의 다 지나가는 날 이였다.

그해 겨울의 경기도 곤지암 도척은 서울 보다 훨씬 추웠다. 허허벌판 같은 곳에 바람은 불고 눈도 잔잔히 휘날리는 날 장갑을 두 겹레 껴도 손은 시리고 얼굴은 어는 것 같은데, 공사기간이 급하다는 회사 측 독촉에 급히 서두른 게 잘못이었다. 퇴행성관절염이 심해서 조심 한다고 했는데, 그만 사고가 생겼다.

겨우겨우 공사가 끝난 후 보름의 시간이 지났다. 무릎 통증은 예전보다 엄청

나게 아파왔다. 진통제도 안 듣고, 동네 의원에서 물리치료도 소용이 없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시간이었다.

치료 방법을 찾던 중 작년 여름 수술한 친구의 추천으로 쌍문동에 있는 관절 척추 전문병원에서 CT와 X레이 검사를 했다. 의사 선생님의 청천병력 같은 소리를 전해 듣고 나는 한 동안 정신이 아득했다. 설마설마 했지만 인공관절 수술이 아니면 치료 방법이 없단다. 퇴행성관절염이 말기라 다른 치료 방법이 없으시단다. 먹고 살기 바빠서 치료를 소홀히한 게 화근이다.

침통한 심정으로 아내와 통화 후 수술을 하기로 의사선생님과 약속하고 다음 날 바로 입원하고, 각종 검사 후 입원한 다음날 오전에 이른 시간에 양쪽 무릎을 동시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

일반적으로 한쪽 무릎을 수술 후 일주일 후 다른 무릎을 수술을 하는데 인공관절 수술하는 환자로서는 비교적 젊고 건강해서 동시에 하자고 하셨다. 병원 원무과에서도 몇 년 만에 처음이란다. 다행히 수술은 잘되었고 경과도 좋아서 2주 후 퇴원을 하고, 재활운동을 꾸준히 해서 3개월 정도 지나니 외부활동도 조금씩 하게 되었다.

문제는 생계가 걱정이 되었다. 그동안 일을 못해서 수입도 없고 빠듯한 살림에 병원비로 목돈이 나갔으니 생활이 힘들어졌다. 원래 지병이라고 일하던 회사로부터 치료비로 한 푼도 못 받았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재활운동을 해야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그동안 해오던 건축이나 인테리어 등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하는 일은 할 수가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수술 전 이야기도 있고 해서 당장 새로운 직업을 찾을라하니 마땅한 게 없었다.

아는 지인의 권유로 경비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용산에 있는 경비교육 학원에서 5일수강하고 수료증을 뒀다. 그러나 아직 무릎도 정상적인 상태도 아니고, 초보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쉽게 구할 수가 없었다.

그저 그렇게 10월이 되었다. 막막했다 올 해 내 나이 진갑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 달이 지나면 한 해가 그냥 지나간다. 생각하다 못해 서울시 다산 콜 120번을 찾았다. 이러저러 해서 생계가 어려워니 제가 할 수 있는 직업이나 정보를 구한다고 문의를 했다. 얼마 후 주민센터에서 두 분이 집으로 방문 오셔서 상담 후 가셨다. 그 후 성동지역자활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 참가 하실 의향이 있으면 며칠 후 옥수역 7번 출구 앞으로 오라는 문자가 왔다. 나는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가보니 옥수역 미타사 옆 광장에 몇 분이 책상을 놓고 상담을 하고 계셨다. 나하고 성동지역자활센터의 첫 만남이었다.

그 후 성동지역자활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소정의 기본교육을 마치고, 생활이 급한 나는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단을 추천 해달라고 해서 금호1가동에 있는 도시양봉사업단에 합류하게 되었다. 2주간 실습기간을 거친 후 10개월째 근무하고 있다.

도시에서 양봉을 하면서 꿀을 생산하고 판매도 하며, 양봉강사도 양성하고, 수입의 일부는 꽃과 나무도 심는다는 도시재생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양봉업체와 협업하는 사업단이다.

도시양봉은 벌통을 들고 꽃피는 철따라 이동하는 이동양봉과는 다른 서울숲과 같은 도시공원과 호텔 옥상과 같은 빌딩 옥상 정원을 이용하는 양봉이다. 외국에서도 이미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많은 양봉 형태라 한다.

처음 내가 벌을 만난 것은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 양봉장이었다. 12월이라 벌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보온을 한 벌통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었다. 해가 바뀌어 2월에 봄벌 깨우기 작업 전에 벌통을 깨끗이 청소도 하고, 벌통에 페인트칠을 해서 준비를 한다.

벌을 키우기 위해선 하는 일이 많다. 해충 방지를 위한 방재 작업, 봄철에 증소와 가을철 축소, 분봉 벌 포획(BEE119), 사양 및 화분떡 주기, 벌통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 보온재 넣기와 빼기, 화분 채집과 채밀, 말벌 퇴치, 오래되어서 까만 소비와 병균에 오염된 소비 소각 등...

성동지역자활센터에서 도시양봉업체 본부장에게 기본적인 양봉에 필요한 도구와 용기들 이름과 사용법, 벌에 생기는 병과 예방법, 벌을 키우는 시기에 따라 해야 하는 일들을 배우고 실습교육에 들어갔다. 벌에 얼굴이 쏘여 눈이 감길 정도로 부을 때도 있고, 손과 볼 등을 쏘이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다. 더운 날씨에 지칠 때도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모두들 열심이다. 열심히 배워서 양봉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는 마음과 열정들이 있다.

6월 드디어 보람의 시간이 왔다. 우리가 관리하고 키운 벌통에서 첫 꿀을 채밀 할 시간이 왔다. 손으로 짚어서 맛을 보았다. 역시 꿀은 달고 맛있다. 우리가 키우고 관리한 벌통에서 채밀한 꿀이라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다. 5월에 채밀한 꿀은 아카시아 꿀이 대부분이라 노랗다 어떤 꿀은 식용유처럼 깨끗하고 투명해서 곱다. 약간 진하고 노란색 꿀이 나는 맛있는 것 같다. 7월 두 번째 채밀을 했다. 7월 꿀은 진한 밤색 꿀이 대부분인 잡화 꿀이 많다. 여러 종류의 꽃 꿀이 섞여서 꿀 색깔도 채밀한 지역마다 다양하고, 맛도 다 다르다.

9월 가을이 왔다. 벌이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를 해줘야 한다. 들깨 꽃이 필 때 사양을 시작해 이틀에 한 번씩 들깨 꽃이 질 때 까지 사양을 해야 벌이 겨울나기 할 수 있는 먹이 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내부포장과 외부포장등 준비할게 많다. 양봉은 겨울나기 준비부터 하는게 양봉의 시작이라한다.

여기서 배운 양봉기술로 자립해서 양봉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노후에 취미생활로 몇 통씩 벌을 키울 수도 있다. 자립을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도약을 하면 창업자금과 기술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지난 10개월 동안 도시양봉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신 성동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이하 많은 직원분들과 특히 팀장님과 도시양봉 관계자와 함께한 동료 여러분 모두들 고맙고 감사드린다.

성동지역자활센터가 올해 생긴지 20주년이 되었다는데, 사회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든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주민들에게는 샘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본다. 나에게 성동지역자활센터는 진짜 새로운 인생 후반기를 생각하고 설계해야하는 60대의 초반에 건강이 안 좋아 내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에 새로 시작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월 수입금은 사회적 최저 임금 수준이 아니어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며 꿈을 키우게 도움을 준 은인과 같은 곳이다.

조금 더 양봉을 배워서 나름대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꿔야겠다. 내년에는 올해에 못한 양봉 강사 교육도 받아야겠다. 성동지역자활센터에 더 많은 사업단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성동지역자활센터가 앞으로도 계속 성동구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큰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도 나는 새 희망을 갖고 성동지역자활센터 도시양봉사업단으로 출근을 한다.

입 선

Dream-up!

신은총 광주



| Dream-UP! 새롭게 꿈꾼다. 나는 이 단어가 너무 좋다.

어린나이에 결혼 하였지만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 하나뿐인 3살 딸의 발달 장애 판정 감당하기 힘든 현실...

가정폭력에서 딸과 벗어나기 위해 이혼을 하였습니다. 29살에 가장이 되어버린 후 ‘꿈’이란 단어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어렸을 때 꿈을 물어보면 5살 때 공주님이었고, 10살 때 꿈은 대통령도 되고 싶고 우주 비행사도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뭄 같은 삶에 주위 사람들이 꿈이 뭐야? 라는 물음에 대답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처럼 하루라도 멋지게 살아가는 것 이였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이 아닌 남의 부러운 면을 보고 따라하고 싶은 삶, 과거의 아픔, 경력단절과 학력부족으로 인하여 일조차 할 수 없어 생활고를 겪었지만 차가운 현실을 딛고 일어나 현재 자활에 참여하면서 저는 카페로망 사업단을 통해 직무교육과 취업·창업 정보제공을

받아 창업에 대한 걱정을 해소 할 수 있었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 현재는 전 통차제조지도사 1급 자격증 공부를 하여 광역자활센터와 협업하여 카페에 전통 차를 전목 시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카메라 속 필름처럼 수많은 변화를 통해 가슴 벅찬 꿈을 꾸며 주변을 살피는 눈이 생겼고, 가슴 따뜻한 일들을 경험하며 나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도 곳곳이 더 밝은 모습을 보이는 자활 참여자들을 보며 ‘늦지 않는 나이 30살인 지금 저의 꿈은 커피 전문점 CEO입니다.’

| 오래바닥

‘세상이 새로운 삶을 시작 할 때 오래바닥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금방 일어나서 다시 시작 할 수 있잖아요’

그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맞춰진 커트라인 나이에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살아가는 것이 저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친구들이 결혼을 시작하고 꽃피우는 26살에 저는 전 남편을 만나 현재 저의 모든 걸 줄 수 있는 딸을 낳았습니다. 갑작스런 임신과 결혼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울 때 출산을 한 후 딸의 얼굴을 보니 혼란스러움보다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은 사회에서 방황을 하며 외도를 하고 딸과 저에게 술을 먹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딸에게 아빠라는 이름을 빼앗고 싶지 않아 3년을 버텼지만, 폭력으로 인하여 딸이 정서적으로 아프다는 걸 어린이집 담당 교사에게 듣고 딸과 제 자신을 위해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경력단절과 학력부족으로 인하여 일조차 할 수 없어 생활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덩그러니 앉자있는 느낌 이었죠.

| 그놈의‘경력과 학력’

‘그럼 나는 어디서 경력을 쌓고 일을 할 수 있나요?’

‘지원동기요? 돈 벌려고 지원 했습니다.’

딸과 함께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학력과 경력이 뭐라고 이력서를 제출한 40군데 회사에서는 면접도 못 간 곳도 있고 면접을 보러 가면 경력이 없어서 안된다, 자녀가 있는데 일은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라고 다 똑같이 질문 하더군요. 여러 회사의 면접이 끝나고 어쩔 우리나라 회사 면접질문은 기계로 찍어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구직상담을 받았던 서구청에서 광주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에 내방을 해서 상담을 받아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센터에 방문하였을 때 상담을 진행 하면서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받았지만, 가족들과 친구에게도 하지 못한 과거의 아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난감하면서 질문에‘내가, 왜? 여기에 있지.’라는 물음이 머릿속에 가득 했습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대답을 하지 않거나 단답형으로 말을 하니, 담당 팀장님께서 ‘대답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시며 따뜻한 커피 한잔과 함께 농담을 하시더니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하고 있던군요. 상담이 끝나고 순간‘뭐야...왜 내가 다 말을 했지?’생각을 하며 헛웃음과 함께 집에 가며 그렇게 게이트웨이 교육에 3개월 정도 참여를 하게 되었죠.

| 장대높이뛰기

‘저는 자활에 참여하는 순간 장대높이뛰기가 생각났어요. 제자리높이뛰기는

혼자서 허들을 넘어야 하는데, 저한테는 탄력있고, 튼튼한 광주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라는 장대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허들을 넘을 수 있죠.’

커피를 좋아한다는 마음보다는 커피숍 이라고 하면 첫 이미지가 ‘마음이 살랑거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있어서 카페로망사업단에 참여 하고 싶다고 담당 팀장님께 고목나무에 매미 마냥 계속 말을 했죠. 지금도 그 때 생각하면 담당 팀장님이 ‘귀가 아파서 병원은 안가셨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웃어요.

카페 로망 사업단에 근무를 하면서 나와 비슷한 환경과 아픔을 가진 참여자들에게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딸과 함께 죽고 싶은 생각을 하루에도 수 십 번 하였지만, 사업단 근무를 하면서 나와 같은 과거에 아픔과 사회적 시선에 낮아진 자존감을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라는 궁금점과 함께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활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근로를 하면서 ‘나도 사회의 일원이다’라는 느낌을 얻어 내 자신이 변화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하나 라는 막막하고 살고 싶지 않은 하루가 이제는 딸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살아갈까, 오늘은 사업단에 방문을 해주신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대할 수 있을까?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득하게 되었죠.

| 성공의 주인공

카페로망 사업단을 통해 직무교육과 취업·창업 정보제공을 받아 창업에 대한 걱정을 해소 할 수 있었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현재는 전통차제조지도사 1급 자격증 공부를 하여 광역자활센터와 협업하여 카페에 전통차를 전목

시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저의 인생을 보았을 때 자활을 참여하게 되어 성공이라는 단어가 명예와 돈이 아닌 ‘나’라는 기준에서 성공의 느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커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새로운 활동과 나를 위한 공부를 하면서 꿈이 생겼죠.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나만의 커피 전문점을 열고 싶어요. 바리스타 공부를 하며 달콤하며, 씹새로운 커피 향과 카페로망에서 받은 위로와 용기로 ‘내가 만든 커피와 음식을 사람들이 먹고 나와 같이 위로와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로망에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커피와 음식을 제조하는데 시간을 보내며 정말 ‘맛있다!’라는 딱! 한마디를 듣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으로 정말로 많은 시간을 고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 주인공이라고 생각 합니다. 자활에 들어와서 한 번도 후회를 하거나 부끄러운 적이 없어요. 이제 자활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 남아있지만 3년 동안 한 아이의 엄마로써 저 자신으로부터 부끄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자활에서 많은 걸 배워 ‘커피 전문점 CEO’로 자활의 꽃인 탈수급을 목표로 내일을 향해 살아갈 것입니다.



입선

희망은 내일을 꿈꾸게 한다

전가희 충남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 줄기의 희망만 있다면 나는 살아갈 용기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라는 희망, 끝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 오늘보다 내일이 더 살기 좋아질 거라는 희망까지.....”

그때는 이런 글귀를 읽으면서도 희망이라는 단어가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았 습니다.

희망을 품고 한국으로 온지 10년즈음 남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베트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봉일을 하다 한국남자를 만나 2005 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의 고향 당진에서 가정을 꾸렸다.

남편은 가장으로써 열심히 일했고 나는 당진시다문화센터에서 한글 공부를 하면서 아이 둘을 낳아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10년차 남편은 갑자기 사망했다. 남편 사망 후 어린 딸과 아들을 양육하려니 힘들고 외롭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망막했다. 시댁은 근거리에서 있어 많은 도움을 줬지만 남편을 대신할 순 없었다.

| 당진지역자활센터는 나에게 친정 같은 곳이다

충남당진지역자활센터 첫 상담을 하러 가던 날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몇 번을 고민하고 뒤돌아서고 다시 문 앞을 서성이던 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그런 나를 상담실로 안내 후 “찾아오시는데 힘드셨죠? 차 한 잔 드세요”하며 미소를 건네던 상담선생님! 긴 터널 안에서 한줄기 빛을 보는 느낌이었다. 한숨 돌리고 나니 어느새 나는 과거를 토해내듯이 많은 눈물로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라며 호소하고 있었다.

힘들었던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늘 불안하고 막막했던 내가 어딘가 출근할 수 있는 곳, 나를 반겨주는 곳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다.

남편만 의지하고 살다 막상 가장이 되고 보니 두어깨가 너무 무거웠다. 막상 첫출근을 해보니 내처지와 형편이 비슷한 참여자들이 많아 동변상련의 아픔을 나누며 서로 힘이 되어 주었다.

자활센터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급자, 차상위가 뭔지 자활근로가 뭔지 잘 몰랐다. 그런 나에게 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끊임없이 인성교육과 소양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준 곳이다. 열심히 살아가는 엄마의 당당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처음으로 배정받은 사업단은 시설도우미로 복지시설 파견이었다. 복지관에서 시설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사업단 종료 시점에 복지관에서 구인의사를 밝혀 하루라도 빨리 자립하기 위해 취업 했다.

근무시간이 오후 3시까지고 집 근처라서 초등학생 저학년인 아이들과 오후시간을 함께 할수 있어 좋았고 취업 후 내일키움통장 해지하고 희망키움통장1을 가입했다.

목돈이 되고 보니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베트남 친정에 다녀오고 싶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일이 있을 때마다 친정엄마 생각났지만 비행기표 구입할 돈이 없어 엄두가 나지 않아 미루고 있을때 마침 복지관에서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후원 연계해 줄수 있다 하여 지원받아 아이들과 함께 친정 베트남에 다녀왔다.

친정엄마 보고 나니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아이들 교육과 복지를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한국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견뎌보기로 결심했다.

| 위기와 기회는 한꺼번에 찾아온다.

아이들은 무력무력 자라고 있고 복지관 급여는 예산부족으로 오르지 않아 고민 끝에 이직을 결심했다.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지원을 더 받기 위해 소득을 늘리고 또 3년 후엔 목돈마련의 희망을 품고 힘들어도 열심히 일했다.

희망키움통장을 가입 후 장려금이 쌓여가는 통장을 바라보며 탈수급을 준비했다. 탈수급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노력했고, 문자서비스로 미납되지 않도록 꾸준히 연락을 해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어려움을 참고 노력한 결과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희망키움통장 만기가 되었다.

나에게 이렇게 큰돈은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내 삶에도 많은 것들이 변한 거 같다.

전셋집이 생겼고 이동수단인 자동차가 생겼다.

| 희망키움통장 만기 해지(탈수급)되다

성실하게 꾸준히 일하다보니 한 분야에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적지만 급여가 최저임금으로 해마다 인상 되었고, 그로 인해 탈수급하여 희망키움통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루빨리 돈은 모아 아이들과 당당하게 살아 가려 노력했을 뿐이다. 베트남 이주여성으로 한부모 가정이지만 당당한 엄마가 되어 한국 정착 한것에 후회 한 적은 없다.

이런 나를 한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차상위 청년저축계좌 가입하라는 안내를 받고 동사무소로 달려가 상담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목돈마련의 기회가 생겨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 지금 나는...

가을 햇살을 받으며 집으로 퇴근하는 길, 피곤함마저 기분 좋게 느껴지는 건 아마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나보다. 평온을 찾은 우리 세 가족은 지금 너무 행복하다. 더 이상 시련도 아픔도 없이 행복의 길로만 걷고 싶다.

딸은 중2, 아들은 초5학년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지 벌써 5년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난 강한 엄마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았고 취업도 했고 탈수급했다. 그리고 고향 베트남을 오가며 남자도 만났고 앞으로 새출발을 꿈꾸며 씩씩하게 살아갈 용기도 생겼다.

머릿속에 늘 맴도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 줄기의 희망만 있다면 나는 살아갈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젠 희망이란 글귀가 낯설지 않다. 희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충남당진지역자활센터 첫 상담을 하러 가던 날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던 그 날을 잊지 못한다.

그동안 판도라 상자 속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했던 “희망”의 의미를 알게 해준 모든분께 감사드린다.



입 선

성동구 “엄지척 자활사업”으로 엄지척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김상두 서울



저는 19살과 21살 남매를 둔 50대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10년 전 저의 고향인 광주에서 40평 레스토랑과 50평 돼지갈비집을 경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저의 가정을 꾸려 나갔고 오랜 지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계신 저희 아버님 병수발을 해드리면서 정말 그때까지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조용히 집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긴다.”는 말처럼 어느 날 아는 지인께서 시내 목 좋은 곳에 180평 소갈비집이 매물로 나왔으니 해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4개월 간 심사숙고한 끝에 그때 당시 경영 중인 갈비집과 레스토랑을 팔고 은행에서 대출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족한 돈을 지인들에게 빌려 소갈비집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한참 자라나는 저의 아들과 딸 그리고 병환으로 고생하고 계

시는 저의 아버님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모시고 살고 싶다는 생각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갈비집을 시작하자 처음 6개월간은 정말 장사가 잘 되고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손님이 계속 줄고 인건비와 임대료 체납 독촉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7개월을 간간히 버티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매장을 정리하고 보니 수중에 남는 것은 수익의 빛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빛 독촉에 시달리다 보니 내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한참 많이 먹을 나이가 되어버린 나의 아들과 딸을 바라보며 그저 눈물만 나오고 물 한 모금도 넘여가지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이 내 가슴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후 대출이자에 허덕이고 빛 독촉에 2년을 시달리다 보니 여기를 떠나 다른 방도를 찾아보자 해서 무일푼으로 서울에 오다 보니 갈 때라고는 서울역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무료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잠은 지하도에서 나와 처지와 흡사한 사람들과 자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노숙인 쉼터를 알게 되어 24시간 게스트 하우스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공공근로도 하고 주말에는 예식장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아들과 딸 학비와 아버님의 병원비도 보내드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면서 주위 분들에 대한 죄책감이 서서히 없어져 갔습니다.

이후 공공근로 사업이 만료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던 중 용답동 주민센터의 노숙인 시설 협력 사업인 “정감 가득한 동행”프로젝트(노숙인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 이사, 등의 자원봉사에 참여하면 지역사회 후원으로 자활 적립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독거노인의 집안일 등을 도우며 저는 인생의 활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나서 무직자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급한 아버님 병원비를 보내드려야 하는데 돈은 필요하고 일자리는 없고 정말 힘든 눈물의 나날이 1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정말 인생의 활기를 찾기 어려워 무료할 때 이전에 내가 가장 만족하며 일했던 어르신들의 집을 고쳐주고 안부확인을 하는 내용으로 성동구청에서 자활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한달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송정동주민센터에 배치되어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집수리 등을 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작업내용을 잘 적어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고 업무를 배분하는 일을 맡아 열심히 했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심적으로 불안한 동료들과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도 나와 같이 일시적으로 좋지 않을 뿐이라며 동료들을 달래곤 합니다. 함께 일하고 때로는 동료들의 어려움에 동감하면서 하면서 어느새 작업반장이 된 내가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돕자고 항상 저의 동료들과 함께 되새기곤 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코로나로 인해 독거노인들에게 방문하는 것이 제한되고 나서 마땅히 할 일이 없어 고민하던 중 구청 및 주민센터 담당자와 함께 지역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중 “우리 멤버 5명이 그래도 몸이 괜찮으니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

설을 차근차근 정기적으로 방역을 해보자”라고 생각되어 구청 및 주민센터 담당자와 힘을 합쳐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야 “엄지척! 방역사업단”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방역사업단은 저와 같이 노숙인 시설 입소자로 구성된 5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지금까지 사회복지관, 복지시설, 지하철, 은행, 파출소 등 여러 기관을 방역해 80개 실설을 786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때 신세였던 노숙인 시설에 방역을 하고 나오니, 참 뿌듯하고 보람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방역사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사서 공부하니 점점 더 “참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말을 하니 까 금전적인 부분은 자활사례관리로 도울 테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라고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방역교육을 앞두고 내가 공부한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해서 방역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사업장 지원에 대해 관계자분들께서 도울 길이 생길 것이라고 희망도 주셨습니다.

작년부터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월급을 받는 순간 이제는 쉼터에서 자립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하고 매월 50만원씩 저금했습니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노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비록 도움은 많이 주지 못했지만 어느덧 바르게 자라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한 아들과 함께 살고 싶어 서였습니다.

이제는 어느 덧 저의 조그마한 꿈에 한걸음 더 다가간 느낌입니다. 돈을 조금

모아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의 지하 단칸방을 얻어 아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택배 상하차로 학비를 벌고 있는 고단한 아들을 보며 이제는 방 2칸으로 어서 이사를 가서 아들방하나 주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것에 만족하며 내 가족과 나아가 이 사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제가 보살펴 드리는 독거노인들을 잘 보살펴 드리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도전중인 방역관련 교육을 마쳐 자격을 취득하고 조그마한 자활기업을 열어 우리 동료들과 함께 운영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보람을 느끼며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주신 성동구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입선

내 소원은 백만 원

김명희 광주



유년 시절을 돌이켜 보면, 나는 매년 학기 초마다 실시하던 가정실태 조사를 가장 싫어했다. 집의 텔레비전이나 냉장고의 유무, 입고 있는 옷의 가격, 심지어는 한 달에 고기를 몇 번 먹는지 까지 친구들이 손을 들면 그 수가 집계되고, 나는 그저 어떤 친구들이 손을 들었는지 둘러보며 부러워했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다. 생활이 어려워져 이것저것 알아보다 주위의 권유로 동사무소를 방문하게 됐다. 수급자며 차상위 자격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현재 상황만을 사회복지 공무원께 이야기하며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그분께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해보라는 권유를 하셨고, 그 뒷날 서구자활 센터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센터 팀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단을 알려주셨고 그중에서 청소 사업단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고 하셨다. 시켜만 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라고 박혀버린 자활센터에서 자활

사업에 참여해 일을 하게 되었고, 매년 자활사업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 하는지, 개선점이나 바라는 점, 현재 급여에 대한 만족도, 희망 급여 등... 내가 자활 사업에 참여할 때가 2005년 즈음이었었는데 그때 당시 급여가 60만 원 정도 이었고, 그 당시 근무하던 사람들의 희망 급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백만 원이었다. ‘희망급여를 물어봤으니 내년에는 급여가 오르려나, 이런 저런 생각에 신이 나지만, 다음해가 되면 그 기대는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때 내소원은 딱 급여 백만 원이었는데, 2012년 내가 자활 기업으로 나오기까지 내 희망이었던 백만 원은 받지 못했다. 문득 현재 자활사업 근무자들의 희망 급여는 얼마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때는 정말 죽지 못해 살았고, 아파도 약 살 돈이 없어서 그냥 살았고, 애들 때문에 살았다. 매일매일 일을 하고 심지어 주말에도 쉼 없이 일을 했지만, 돈은 항상 부족하고 애들은 날마다 먹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많았다. 그때마다 나는 쓴 약을 먹은 듯 마음이 씹쓸했지만 애들에게만큼은 웃으며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 같이 먹자.”라는 말들로 약속을 미루고 미뤘다. 웃긴 얘기지만 그 때의 나는 길가다 백만 원만 주웠으면 하는 소원도 있었다. 백만 원을 주워서 어떻게 쓸까 기분 좋은 상상에 빠져 있다가도 그 백만 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급한 수술비에 써야할 돈이진 않을까, 미루고 미루던 집세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달콤한 상상도 산산조각 나버린다.

청소사업단에서 근무한지 5년 정도 지나니 청소 사업단을 맡고 계시던 팀장님께서 자활기업으로 나가야 하니 생각해보라 하셨다. 주위 사람들은 자활기업으로 나가면 돈도 못 벌고 고생만 하고 힘이 드니 생각하지도 말라고 했다. 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싫다고 했다. 사업단은 일도 힘들지 않고 출근만 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매달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받으니까 그때의 나로서는 안정된 직장이었다. 오래 근무한 언니들은 나에게 사업단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몇 달 타먹고, 다시 사업단에 들어와도 된다고 하며 그럼 몇 년간은 또 편하게 근무할 수 있다고도 했다. 들어보니 그럴싸했다. 그렇게 사업단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 보니 센터에서 주는 급여보다 더 많았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 보니 다시 직장을 구해야 했고, 식당 서빙, 설거지, 마트 캐시, 우유배달 등등을 생각해 봤지만 너무 힘들 것 같아 다시 청소 사업단으로 들어왔다. 들어와서 보니 아직도 공동체를 나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 당시 청소 사업단을 맡고 계시던 실무자께서 협동조합 공부도 하시고, 우리들에게 교육에 참여할 기회도 주시며 자활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주셨다. 여러 교육들을 받다보니 가랑비에 옷이 젖듯 어느새 우리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자활기업으로 나간다는 자신도 없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난 속으로 내가 선두에 서야 할 것만 같았다. 함께 있던 동료들은 다 경험이 없었고, 그나마 내가 주말 아르바이트로 틈틈이 익힌 청소 기술과 청소사업단 반장으로 근무하며 참여자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에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다. ‘이놈의 팀장이 처음부터 나를 놓고 큰 그림을 그린건가’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그때 2012년 말 때쯤 협동조합법이 생겼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기에 우리들은 최종 7명을 뽑았고 나는 그렇게 대표가 되었다. 센터 실무자는 발 빠르게 움직였고 우리는 2012년 12월 31일 서구 1호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름도 근사하게 청소박사협동조

합으로! 서구에서 1호 협동조합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지역신문에도 자그마하게 기사가 났다. 하지만 우리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창피하고 민망하기도 했다. 창업 당시 그렇다 할 일거리도 없었고 사업단에 있을 때와 별반 다를 것도 없었다. 사업단에서 일하던 대로 나보다 나이 많은 언니들은 아파트 일상관리 청소를 하고, 나머지는 간간히 지인들의 소개로 들어오는 입주청소며 다른 청소 기업에서 주는 일을 했다. 일이 별로 없으니 매출도 많지 않았다. 그래도 이게 최선이다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다. 일자리 지원금을 5년 정도 받으니까 선배 자활기업들처럼 다시 사업단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다. 하 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내가 대표직을 맡고 보니 책임감이 생기고 목표가 생겼다. 나는 같은 팀원들에게 “우리들은 절대 선배기업들처럼 사업단으로 돌아가지 말자. 우리 힘으로 일하고 우리가 벌어서 살자. 우리는 수급자 차상위자 이지만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말자.”라며 파이팅을 외치고 일거리를 찾아 여기저기로 뛰기 시작했다.

우리들의 의지가 전해졌는지 우리들보다 5년 정도 먼저 기업으로 나간 선배 기업에서 자기네들의 거래처인 학교 한곳을 소개해 주었다. 그곳이 바로 운천초등학교였고, 학교실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자활에서 나온 사람들은 게을러서 일도 제대로 안하고 시간만 때우다 간다. 또 자활사람들은 나라에서 급여지원을 받으니까 그냥 짬 맛에 일 시킨다.”라고 그 말을 듣고 나는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했다. 자활 사람에 대해 그런 인식을 가진 실장님께 딱 6개월만 지켜봐달라고 했다. 학교 일상관리 청소를 하면서 실장님의 고정관념을

깨버리기 위해 열심히 더 열심히 치우고 쓸고 닦았다. 같이 일하던 팀원들도 같은 마음이라 6개월이 지나고 또 6개월이 지나 재계약을 앞두고 실장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 무슨 말을 하실까 조마조마 했지만, 실장님께서서는 1년 동안 우리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자활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본인의 생각이 우리 청소박사로 인해 바뀌었다고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지 물으셨다. 우리들은 너무 기뻐고 실장님께 학교 한곳만 더 소개해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근처학교를 소개해 주셨다.

초창기 두 개의 학교에서 네 개의 학교로 점점 늘어나 열 네 개의 학교까지 청소박사가 관리하게 되었다. 그동안 선배기업은 폐업해서 사업단으로 다른 직장으로 흩어졌고 두 명의 언니들이 탈수급을 하면서 청소박사를 그만 두며 새로운 팀원들이 들어왔다. 식구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만큼 인정도 받다 보니 구청장상에 이어 시장님까지 상을 주셨다. 언론에서는“자활 기업 성공사례”라고 인터뷰도 하고 기사에 사진도 실렸다. 우리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건데 뭐가 성공이라는 건지 괜스레 민망하고 창피했다. 남들과 다른 점을 꼽자면 우리 자활기업 한명 한명이 소중하기에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아닐까? 일하다 기분 나빠 싸우기도 하고 그만 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그 뒷날 출근해서 일을 하고 밥을 먹으며 자연스레 화해를 하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나하나 빠져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안하면 다른 식구들이 더 힘드니까 내가 먼저 해야지’ 하는 모습이 좋다. 그렇게 우리들은 청소박사협동조합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사회적 기업으로서 나 하나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넘어서 남도 생각하고 그들

과 손잡고 사회를 돌아볼 여유도 생겼다. 내가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 살고 있을 때 받았던 따뜻한 관심을 우리들도 그들에게 베풀고 나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들에게 나눔 받고 같이 어울리며 살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광주 자활기업 협회장직도 맡게 되었고 청소박사는 2018년 7월에 국무총리 상도 받았다. 뒤이어 광주 선도 기업으로 선정되어 다른 기업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니 청소박사의 가는 길은 평평한 길만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어느 날 정부 정책에 학교 직접 고용이 발표되고 시행되게 되었다.

초기에 7명으로 시작했던 협동조합을 취약계층 14명까지 고용해서 정말 뿌듯하고 좋았는데 다른 방책을 준비한다는 정부말만 믿고 미처 준비도 하지 못한 사이, 직원들은 학교로 직접고용이 되어버리고 실무자였던 과장님과 초창기 멤버 소수만 남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 내색은 안했지만 그 막막한 마음은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졌다. 나는 잘될 거라고 우리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희망을 잃지 말자고 서로를 다독였다. 그동안 우리가 일궈냈던 일터가 없어져 버리고 매출도 뚝 떨어지고 전국 여기저기서 폐업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 그나마 우리가 열심히 일했던 학교에서 청소박사라면 강당왁스, 복도왁스, 학교대청소 등등을 맡고 맡길 수 있다고 간간히 일거리를 주셨다.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해보자 한번 고객은 평생고객이다.' 라는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일을 했다. 작은 평수의 입주청소도 소홀이 하지 않고 주말도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계약된 날짜를 맞추기 위해 밤늦게까지 심지어 새벽에도 일을 하고, 밥해먹을 시간이 없어 점심 저녁을 다 사먹다 보니 살도 많이 찌서 지금은 빠지지도 않는다.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 다시금 입소문도 나고, 부탁도 안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메

신저를 통해 청소 잘하는 업체라며 소개도 시켜주시고, 실장님들과 교장선생님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현재는 방학 때 청소박사에게 일을 맡기려 두 달 전부터 예약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학기 중에도 일을 맡기신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한다. ‘몸 아껴가며 대충대충 살라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주위에서 잘한다하면 그 기대가 부담스럽지 않느냐고.’ 그런 말들을 들으며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현재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들을 모른 척 못 들은 척하고 내 일을 다시 한다. 학교 직접고용 당시 느꼈던 좌절감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기에.

사무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자체의 애정 어린 관심에 우리들은 힘들다 하면서도 힘내서 신나게 일하고, 그러다보니 고객들에게서도 인정도 받고, 그랬더니 더 열심히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우수 자활기업으로 선정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지금은 식구들도 9명으로 늘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학교 청소도 관공서 청소도 방역소독도 꾸준히 들어오고 LH 에서 수주를 받아 입주청소도 하고 있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하다. 한 번은 동사무소 대청소 의뢰가 와서 견적서를 보냈고 청소를 한 뒤 사진을 보내고 완료했다며 보고 했는데 견적서를 다시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 청소가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게 되어 돈을 더 준다고. 깨끗하게 청소된 모습을 보고 고객들이 기뻐할 때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내 직업에 애착감과 자랑스러움을 갖게 된다. 사업단에서 근무했더라면 이런 기쁨과 보람은 느끼지 못했을 것 같다. 또한 진정한 청소전문가가 되기 위해 민간자격증인 천정형 냉난방기세척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방역 전문가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이번에는 위해생물방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처음 기업으로 나올 때 팔십만 원도 안 되던 급여가 지금은 내가 일한만큼 가져가니 남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다. 자활기업을 준비하는 참여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는 현재 급여이다. 내가 이만큼 벌기까지 노력하고 고생한 건 궁금해 하지도 않고. 그래도 나는 웃으면서 대답해준다. 일하고 노력한 만큼 가져가고 치킨, 피자도 마음껏 먹고, 홈쇼핑도 자주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사업단에 안주 하지 말고 5년이란 시간이 있으니 겁내지 말고 자활기업으로 나오라고 당신들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청소박사협동조합이 성공했다고 말한다. 나는 아직도 우리 청소박사협동조합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너고 네가 나인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 나는 그 거면 됐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청소박사 식구들은 변함없이 청소를 할 것이고 우리는 사회적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박사 식구들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입선

멈추지 않는 롤러코스터, 끝을 향해 나아가다

한재원 부산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대한민국 엄마의 힘을 모두 지녔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재원입니다. 사실 몸이 건강해 힘도 좋아 보이지만 마음여리고, 귀 얇고, 우유부단한 그냥 아줌마입니다. 나이 40대 초 전 이혼을 했습니다. 네, ‘이혼이 별거냐. 여자의 힘이라면 아이 열도 키우겠다. 지인, 친구의 그 말들과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어. 아직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 했는데, 이 말들은 다 거짓입니다. 아무리 아줌마의 힘이 대단하다지만 혼자 벌여 애 키우며 생활하는 건 정말 무리구나, 생각을 하면서도 자식을 바라보니 또 하루하루가 버텨집니다. 다단계, 보험, 박수부대, 편의점 알바 이것저것 다해보고 저는 열심히 삽니다. 한 달, 두 달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수중에 돈이 없는 저는 빨리 직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자라고 있는 우리 두 아이에게는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되고, 힘들지 않게 해야 되고, 자고 있는 모습 보면 뿌

듯해야 되고, 잘해야 되네 하는 생각입니다.

보험, 다단계 돈 없는 저는 딱 ‘말아먹기’ 쉬운 직업이고, 편의점 알바는 최저 시급이 되지 않아 생활비, 공과금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고정적인 직업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는 가운데 기초생계급여 신청을 해보라고 지인이 말해줬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서류를 작성해 신청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자산도 없으니 기초수급자가 됐습니다. 근데 수급자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직업을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물어보니 ‘구청 복지과에 한번 가서 물어보라’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하루빨리 직장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구청 담당 직원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 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직까지 먹고 살만 했을까요. 아니면 할머니도 아니고 나이도 이제 40대 갓 초반이어서 부끄러웠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뭐라고 할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뭐부터 이야기하지?’ 고민 끝에 그래도 찾아가보자 마음을 먹고, 저와 같은 처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 분들. 그분들이 저보다 많이 배우고 아는 것도 많을 테니 일단 한번 가보자 해서 혼자서는 못가고 아는 동생한테 부탁해 같이 갔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약간 한산한 분위기에 들어가 일단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남성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딱 테이블에 앉았을 때 왜 갑자기 눈물이 나는지, 여자도 아니고 남자 앞에서. 전 부끄러웠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딱 그 사회복지사가 하는 한마디. “그동안 힘드셨나 봅니다.” 맞습니다. 표현을 안했을 뿐이지 힘들었나 봅니다. 구청을 찾아가니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 연령은 갈 곳도 많고 열

심히 배우면 일자리, 가게도 만들어준답니다. “창업” 거기에 꽂혀 구청 사회복지사 소개로 부산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에 일자리를 알아보러 가게 됐습니다. 이제 부끄러운 것도 없고, 나도 모르게 당당해 졌는지. 구청에 찾아갈 때는 혼자서는 못 가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혼자서도 찾아가집니다. 근데 또 그놈의 눈물. 자활센터에 가서 또 눈물샘 폭발. 내 눈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여자 팀장님(나중에 알고 보니 자활센터 실장님이셨어요). “어머님^^~ 하늬마루, 고우니 카페 있어요. 가시고 싶는데 있으세요?” “고우니요.. 이름이 예쁘잖아요.”,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고우니도시락카페’에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전 자활센터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대한민국.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외국에 있는 친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친구야. 참 복지 잘되어 있더라.’전 하루하루 출근길이 너무 좋습니다. 넓은 들판에 한적한 공원 북적북적한 주말. 월급 꼬박꼬박 나와. 이런 직업이 어디 있는지. 열심히 선배들께 배우고, 따르고, 한 결과, 처음 부산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에 들어가 사례담당자께 했던 말 “전 창업할건데요. 음식을 좋아하고, 전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나의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배워 ‘창업’할게요. 전 자립하고 싶어요~” 했던 말이 3년이 지나 이루어 졌습니다.

‘라면’을 너무 좋아해 라면가게를 하기 위해 열심히 다니고 먹고, 또 다니고, 기차타고, 버스타고, 걷고 몸무게 엄청 불어가면서 시식해 보고 만들어 보고 했습니다. 드디어 라면 가게 “면에 빠지다”간판을 걸고, 창업을 이루어 냈습니다. 처음에 진짜 벅차고 부자가 된 느낌 어깨에 힘 팍팍 들어갔습니다. 진짜 잘~

살아야지.

근데 고난에 연속이 또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가게 오픈도 못하고 장사시작. 2020년 1월 3일 오픈 이후 갑자기 온 나라가 떠들썩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떡 하니 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운이 없나 싶고. 이름 때문인가 다시 개명해볼까. 하루에 수입이 2만, 7만……. 큰일 났습니다. 진짜 지옥이 뭔지 모르겠지만 뒷골 당기고, 머리도 아프고, 일도 안했는데 온몸이 쳐집니다. 장사가 안 되니 그냥 한숨뿐입니다. 그래도 지나가겠지. 기다리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합니다. 또 코로나가 단체로 터지고, 나아질 기미가 안보입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코로나가 뭔지도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친절, 청결, 맛, 유지 잘하고, 꾸준하니 한명, 한명 단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수입이 없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부산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 근무자들과 담당 총각 팀장님, 고우니도시락카페부터 창업까지 이것저것 정리하시고 신경 쓰신다고 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좀 까다롭긴 하지만. ‘여자보다 더해 왜?’, ‘빨리 결혼을 해야 느슨해지려나.’ 저는 여기까지 혼자서 절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식당에 나와 라면을 끓이면서 그래도 참 어쩔 땐 기특합니다. 제 자신이, 그런 제자신이 무너지지 않게 계속 옆에서 지켜보시고 계신 지중해 팀장님, 주위에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는 지인들, 그리고 우리 자식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기본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열심히 보다 잘~~’ 모든 자활기업 근무자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면빠지다’에서 맛있는 라면을 끓이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입 선

나의 꿈에 대한 도전은 아직도 진행중(ing)

박필수 경기



저는 어려서부터 가정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행복해하는 삶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39살의 늦은 나이에 운명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우리 부부는 고민 끝에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단란한 세 식구로 가정이 꾸려져, 이것이 행복이구나 생각하며 남들처럼 평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하고 작은 행복은 제게 사치였나 봅니다. 어느 날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 믿고 의지하던 저의 남편이 치료법도 존재하지 않고, 잘못하면 생명에 위협이 가해지는 ‘낙엽상천포창’이라는 희귀난치병 판정을 받게 되면서, 짧았던 행복을 무참히 앗아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고, 저는 16개월 된 어린 딸의 양육과 남편의 병수발, 그리고 가족의 생계까지 홀로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은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그 무렵, 자활사업을 알고 수공예사업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적은 월급이었지만 동 주민센터에서는 남편의 치료비와 아이의 양육비를 보조해주어 숨통이 트였습니다. 막막했던 저에게 사업단으로 출근하는 것은 힐링이었습니다. 새롭게 일을 배우는 것도 즐거웠고, 나만 힘들지 않았구나 하는 위로도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택은 제 인생과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변화를 준 일생일대의 선택이었습니다.

자활은 제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뿐 아니라,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 그리고 이 상황을 잘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자신감을 통해 감히 “창업”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생기니 더욱 힘이 났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센터의 지원으로 8개의 다양한 공예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우리가 만든 천연 향초는 경기도 우수자활생산품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사업적 면모를 갖추기 위해 제품의 인증과 허가에 관한 사항을 살폈고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담당선생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 그렇게 ‘창업’이라는 ‘희망’은 무너졌던 저를 다시 세우고, 성공이라는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희 자활기업의 이름은 “에코수”입니다. 아프고 힘들어하는 가족의 치유와 더불어 환경의 수호자가 되어보고자 자활기업의 이름을 “에코수 = ECO(친환경을 뜻하는 에코) + soo(제 이름의 마지막 글자 ‘수’)로 정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자연을 수호하자는 원대한 꿈과 책임감을 갖고 창업을 하였습니다. 자활기업으로의

창업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시작하고 사업을 제대로 펼치기도 전에 함께 창업한 동료가 폐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과 회복의 과정은 당사자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지만 대표인 저는 다시 무거운 짐을 홀로 져야 했습니다.

제가 항상 혼자 버거워할 때마다 자활은 다시금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자활센터에서는 계속 저의 노력과 의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런 응원 덕분에 함께 창업한 동료도 회복하여 돌아왔고, 우리는 새로운 동료도 맞이하여 안정적 사업의 틀을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센터에서는 상품개발과 판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었습니다. 저는 힘들었던 과정이었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라는 생각에 지금도 가슴이 벅차옵니다.

저희는 함께라는 생각으로 다시금 힘을 내었습니다. 협동조합이면서 ‘여성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었고, 복사골문화센터와 아이디어스, 네이버 등 온·오프라인 상점에 입점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어렵다는 ‘화장품제조업(고형비누) 허가’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관심없던 홈페이지에 고객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수업은 청소년들에게 제가 가졌던 꿈을 나누는 귀한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저희는 친환경을 추구하는 만큼 사회적경제와 꾸준히 함께 성장하는 틀을 마련하여, 현재 저는 부천시 교육사회적협동조합에서 교육분과장도 맡아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품고 시작한 창업이고 열심을 다한 나에게 상을 주듯이, 제 남편은 희귀난치병을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하여 현재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딸도 특별한 문제없이 우리 부부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록 성공을 이뤘다고 말하기는 부족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그 좌절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을 또 다시 시작하며 어려움을 만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저를 믿고 응원해 주는 가족과 동료들, 그리고 자활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대단한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때론 저에게 닥쳤던 두려움과 좌절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한걸음씩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희망을 품어 행복했던 것처럼, 저 역시 다른 이들이 희망을 품게 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수업을 하면서 2시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간 자체가 행복한 것처럼 이러한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나눠줄 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대고, 설렙니다.

꿈에 대한 설레임은 아직도 진행중(ing)입니다.

입선

달리다 보면 길은 있습니다.

김설희 대구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됐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그런 일은 예상하지 못하지요. 막막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됐다는 얘기를 부모님께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도 경력도 없는 제가 혼자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집과 가까운 곳에 9시 출근, 6시 퇴근 그리고 아이가 아프면 보호해 줄 곳이 없던 저는 생각 끝에 주민센터를 찾게 됐고 그때 자활이라는 곳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젊은 나이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컴퓨터를 다룰 수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대구서구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도우미로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모두 다정하게 잘 대해주셨고,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를 도우며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어린이집에 잘 적응해서 건강하게 커갔고 저 또한 다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영향을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도전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무료로 사이버대학에 등록을 할 수 있었고 공부와 일, 육아를 병행하며 대구서구지역자활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때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들이 어찌나 멋져 보였는지 모릅니다^^

저도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옆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자활도우미로 근무한 지 4년이 지났을 때 저는 서구자활 사무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근로기간이 4년이었거든요. 정든 선생님들과 실관장님과 헤어지려니 아쉬움 반, 두려움 반...

그때 서구자활에서는 수건을 판매하는 사업단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단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건을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라 수건 인쇄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디자인을 맡게 됐지요. 그렇게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디자인’에 ‘디’자로 모르는 제가 일러스트와 포토샵 프로그램을 깔고 책을 사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수건에는 거창하게 디자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기도 뭣해서 “일단 프로그램만 능숙하게 만져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 일주일을 프로그램 책만 보면서 보냈습니다. 첫 주문을 받던 날 떨리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독학으로 일러스트와 포토샵 프로그램을 만지

게 됐는데 생각보다 수건이 그렇게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저만 해도 수건은 선물 받는 건 줄만 알았지 매장에 직접 가서 사본 적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매출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실장님이 오셔서 저에게 현수막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겁도 없이 단번에 OK했지요.

디자인 뭐... 수건에 들어가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현수막은 많은 디자인이 필요로 하더라구요. 디자인부터 현수막 마감하는 방법까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이틀에 현수막 주문 한 장씩 들어왔었습니다. 이것도 다행이었지요^^ 현수막 주문이 들어오면 한 장 디자인하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안을 보낼 때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던지. (욕 안하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보냈습니다.)

현수막 마감하는 것도 유튜브*로 배우고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현수막 디자인이 손에 익을 때쯤 이것저것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초청장, 리플렛, 봉투, 상패...

이걸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꾸역꾸역 어찌저찌 하다보니 손님은 점점 늘고 작업할 공간이 부족해 4년 전에는 사업장도 큰 곳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거기다 간판 주문도 들어오면서 저는 살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옥외광고사’ 자격증을 따야만 했습니다. 간판설치를 하려면 옥외광고사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마침 그 당시에 자활연수원과 대구광역자활센터에서 자격증 취득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라 당연히 저는 신청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산 넘어 산이라고 대구에는 학원이 없어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며 자격증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또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고생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기차타고 가는 1분 1초도 아까워서 관련 책을 보고 동영상을 봤지요. 일을 하고 퇴근하면 책을 보고, 주말에도 아이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드디어 시험 날, 시험을 치러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 기차를 타러 가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았지요. 부산으로 가는 기차에 오르며 꼭 한 번에 붙어야 된다는 생각만 되되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사업장에서 합격발표 확인하고 춤도 쳤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축하해주셨고,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간판 설치도 하고 인쇄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좋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은 늘어갔고 단골들이 생겼고 정신없는 하루하루가 계속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4분기 매출이 1억 넘었다는 얘길 듣고 꿈인가 생시인가 했지요.

쉽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대구서구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도우미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사업단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꽤나 부정적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수급자인게 부끄럽고 삶의 의욕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10년간 여기 몸담으면서 제가 느낀 자활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밀어줄 준비가 돼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디자인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천직이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이 일이 너무 즐거워서 앞으로도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성공한 거지요.

아이가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언제 컸는지도 모르게 훌쩍 커버렸습니다. 아직까지 교복 입은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자활이 없었다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우지 못했을 겁니다.

늘 제 옆에는 엄마가 있었다고, 편모가정이지만 외롭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아이로 자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겁 없이 도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활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글을 빌어 대구서구지역자활센터 실장님, 그리고 선생님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더나은기획'은 자활기업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자활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일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발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입선

바닥을 쳤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다.

김홍복 경기



아이가 축구에 대한 목표가 막 생겼을 무렵, 그 꿈을 지켜주지 못할지도 모를 거라는 불안감과 함께 엄습한 사업부도... 그로 인해 오랜 시간 공들이고 애쓴 시간들이 무색하도록 우리 가정에 불어닥친 갑작스러운 상황은 그 어떤 해결책도 없이 삽시간에 나와 내 가족을 덮쳤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졌다. 그것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로 차원에서 내게 한 번씩 건네던 말이 바로 그 문구였다.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에게 통상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 말이 모두의 진심 이길 바랐다. 발이 바닥에 온전히 닿아야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 의미가 진정 사실이라면 이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오기가 생겼고, 좌절할 겨를도 없이 정신이 번쩍 나는 듯했다.

하지만 어디서, 무엇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그

당시 내 머릿속엔 없는 빈 백지상태였다.

당장 길거리에 나왔게 된 내 형편이 다 까발려질 대로 까발려진 가운데서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만 너무나 컸고 간절했다. 그러나 달리 뵈족한 수를 찾지 못한 채 고민만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함께 봉사했던 학부모로부터 면사무소에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냐는 귀뜸을 받게 됐다. 그게 결정적 한마디가 되어 내 몸은 어두운 터널에서 출구를 찾듯 면사무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한 직원의 친절 한 상담을 통해 자활센터라는 곳을 소개받기에 이르렀다.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지 별반 큰 기대는 없었다 해도 막막했던 가슴에 한 줄기 빛이 찾아 드는 기분이었다. 나와 같은 처지를 받아주는 곳이 있다니... 그 사실만으로도 숨통이 트였는데,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나는 토로와도 같은 긴 상담 후에 나는 재기할 수 있으라는 힘을 얻었고 다시 한 번 “창업”이라는 서막을 조금 엿본 것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았다.

그렇게 2017년도에 가전청소 자활사업단에 소속이 돼서 자활근로를 시작하게 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의지는 점차 확신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사업단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나는 창업에 대한 설계도를 마음에 품었었다. 그러면서 내일키움통장을 가입을 하였고, 때마침 편의점 사업단이 발족이 되면서 그것은 명확한 그림과 발판을 제시했다. 처음에는 가전청소 창업을 하려고 했다. 편의점 사업단이 새로 개설되면서 나는 편의점 사업단으로 가서 한번 잘 이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의점 사업단으로 재배정을 받았다. 현재 우리“포바기”는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편의점 이었다. 조합원들은 나와 같이 편의점 사업단에

서 만나서 뜻을 같이 하게 되었다.

창업을 말처럼 쉽지 않을 거라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말들도 내 의지를 꺾진 못했고 나는 이곳이 내 사업의 인큐베이팅이라고 여기고 사업단의 편의점 업무를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워나갔다. 다른 사람들이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이 오히려 가장 적기라고 여기면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지켜갔다.

그러나 창업교육부터 설립 서류 코칭 등 길고 긴 모든 준비 과정이 순탄치 않고 우여곡절이 생기지 않을 순 없었으나 센터 선생님들은 옆에서 때론 가족처럼, 친구처럼 도움이 되고자 바쁜 시간을 할애해 가며 힘을 써줬고 내 개인적인 신용이나 자본 등 창업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난관이 닥칠 때마다 용기를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센터장님의 멘토링 또한 모든 문제를 다시 긍정의 시선으로 바로잡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렇듯 센터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조합으로서의 편의점 사업이 2020년 어느새 윤곽이 드러나 있었다. 꿈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무엇이든 포기하지만 않으면 또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몸소 체험이 되는 순간이었다.

편의점 창업은 하나의 시작이었고, 창업 후 1년 만에 LH 수선유지공사를 맡게 되는 꽤거 또한 이루어졌다. 자활협회, 자활센터 실장님과 조언과 정보를 주셨고, 또한 LH에서도 우리 “또바기”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생각과는 달리 준비하고 배워야 하는 것들 투성이었고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자격증 하나 없어도 맨몸으로 다시 부딪쳐보자는 의지와 투지가 또 불타올랐다. 공무도 업체

도 자격증도 하나 없이 시작부터 어려움투성이였으나,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가운데 돕는 인력들이 하나씩 생겨났고 지금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자활사업단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훈련을 하고 창업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지가 이렇게 탄탄하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노력이 따라야만 현재의 자리에서 돌파를 할 수 있다는 지혜를 얻었다. 그때의 나처럼, 누구에게나 한순간 닥쳐올 수 있는 시련 앞에 현실이 힘들다고 실망하기에는 숨겨진 보화가 곳곳에 있고 돌파를 원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줄 좋은 디딤돌이 이 나라와 이 지역사회에 얼마든지 준비돼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업체를 만날 때마다 내미는 명함에 새겨진 ‘또바기’라는 우리 사업체의 명칭은 다이어리의 첫 장에 기록된 그 문구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때가 내 인생의 2막으로 하프타임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 기점을 맘이 편하고 일이 잘 될 어떤 한때에 두지 않고 가장 고난이었을 시점에 두어 내가 혹여라도 나태해지려 할 때나 감사를 잃어버리려고 할 때 언제나 “처음처럼”, “처음과 같이”의 뜻을 떠올리면서 내가 어디에서 넘어졌고 다시 어디에서 일어섰는지를 돌아보고 그 마음가짐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와 함께 역경을 통과해온 아이도 그 어느 때보다 축구를 열심히 하면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나 또한 이제는 내가 일어서기 위한 것 이상으로 반드시 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안정되고 따뜻한 일자리가 되어주기 위해 우리 또바기의 자원이 될 만한 것들을 찾고 또 찾으려고 한다.

우리“또바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할 것이다. 현재 사업에서 더 도전을 하여 카페 및 외식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도전은 재생사업 까지 도전을 할 것이다. 현재 나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수급자 5명 일반 근로자 2명이지만 나중에는 카페, 외식, 재생사업까지 도전하기 위해서 50명 정도와 같이 “또바기”를 이끌어 내고 싶다.

바닥을 치면 올라간다는 문구가 적힌 다이어리를 펼칠 때마다 차고 오를 수만 있다면 슬픔에도 바닥이 있음을 아는 것은, 나는 그때 내 앞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았었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 또바기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또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입선

마르지 않는 열정으로 쿠키를 굽다.

조옥진 부산



노릇노릇, 오늘도 오븐에서 쿠키가 구워져간다.

향긋한 커피향, 달콤한 쿠키향. 쿠키와 함께 부풀어가는 나의 꿈.

남들이 보기엔 작은 카페지만, 땀으로 일구어 낸 소중한 나의 일터이다.

2018년 6월.

일 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무작정 찾아간 자활센터. 처음엔 자활이 뭔지도 몰랐다. 그냥 일 자리를 준다고래 나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간 것, 그게 다였다. 다른데서는 애가 어려서 안된다, 경력이 없어서 안된다, 이유도 다양각색이었다. “애가 세 살이에요? 애는 누가 봐 주고?” 이 말을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일하는 동안 아이를 봐 줄 곳을 구하고 나니 경력이 문제였다. 계속 안된다는 말만 듣고 나니 안된다는 말엔 진절머리가 났다. 백화점에서 판

매 일을 십 년도 더 했는데, 그걸 경력으로 쳐 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상담이나 받아보자, 편한 마음으로 찾았었다. 사실은 여기는 뭐 다를까 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게 웬걸, 교육도 해 주고 일자리도 준단다. 열심히만 하면 창업도 할 수 있단다. 이 기회를 잡아보자 싶었다.

“커피사업단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창업을 하고 싶어요. 백화점에서 물건 파는 일만 십 년도 더 했는데요. 사람 대하는 데는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커피열매 사업단에서 자활을 시작했다. 사실 처음에는 걱정도 되었다. 기술을 배워서 창업을 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커피의 C자도 모르고 시작했으니까. 팀장님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며, 하나하나 배운다고 생각하고 같이 해 보자고 했다. 다행히도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들 좋은 사람들이라, 일에는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

일하는 게 어느 정도 편해지니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카페를 차리려면 자격증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 같이 일하는 언니들은 바리스타 자격증에, 디저트 자격증에, 다들 아주 휘황찬란했다. 그 래, 나라고 못 할거 뭐 있냐. 그까짓 거 한번 따 보자 싶었다. 독학으로 바리스타 2급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노력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던가? 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이 있단다. 학원비를 대신 내 준다고, 열심히 해서 자격증만 따면 된단다. 자격증은 따고 싶는데 학원비가 무서워 눈치만 보고 있던 나에게는 아주 희소식이었다. 디저트 전문가 자격증을 따고 나니, 자신감이 붙었다. 뭐든 할 수 있

을 것 같았다. 더 어려운 자격증도 도전해 보자, 싶어서 제과 자격증에 도전했다.

2019년 7월, 새로운 경험을 시작한 달이었다. 팀장님이 봉사단을 만든다며 참여해 보는 건 어떻냐며 물어봤다. “일하기도 바쁜데 봉사는 무슨 봉사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상 생각해보니 재미있을 것 같았다. 작년에 봉사단 했던 언니도 작년에 너무 좋았다면서 같이 하자고 꼬셔댔다. 손해 보는 일도 아니고, 나도 좋은 일 한번 해 보자 싶어서 하겠다고 했다.

처음 하는 봉사활동은 어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다. 시작도 전부터 자원 봉사 교육, 자격증 시험 등 준비할 게 많았다. 무슨 봉사하는데 자격증이야, 했더니 대상에 대해 잘 알아야 봉사도 잘 하는 거란다. 그래도 배워 두면 쓸 데가 있겠지, 싶었다.

제일 관건은 체력이었다. 작년에는 노인분들이랑 했다던데, 올해는 애들이랑 하는거다 보니 체력이 달렸다. 애들이 귀여운거랑 내가 체력이 달리는거랑은 또 별개의 일이었다. 그래도 2주에 한 번씩 선물도 갖다주고, 아이들이랑 그림도 그리고 놀다 오면 뿌듯하기도 하고, “고맙습니다~.”하며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했다. 사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다. 봉사하는 날이 기다려지기도 했다. 사하자활봉사단, 이라고 쓰인 노란 조끼를 입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아이들이랑 사진도 찍고, 난생처음 수기집도 만들어 보고.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해 볼 수 있어서 즐거웠다. 같이 하는 봉사단 사람들도 맨날 힘들다 말만 했지 다들 재미있어하는 눈치였다. 자활을 하면서 일만 할 줄 알았지 봉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소리 듣고 다닐 줄 누가 알았을까.

그렇게 봉사단 활동도 하고, 사업단에서 일도 하고, 자격증 준비도 바쁘게 하던 와중 팀장님이 또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셨다. 자활기업 ‘투프렌즈’에서 원래 일하시던 대표님이 건강 문제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투프렌즈에서 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시냐고.

처음엔 고민도 많이 했다. 창업을 하고 내 가게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자활을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고 난 후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갑자기 자활기업이라니,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다. 그래도 기회가 왔으니, 나 자신을 한 번 믿어보자 싶어서 시작했다.

사실 일 자체는 커피열매에서 하던 일과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 똑같이 커피 내리고, 쿠키 연습하고, 봉사활동 다니고. 같이 하는 동료들이 없으니 좀 더 바쁘고, 외롭긴 했다. 그래도 자활기업이니 내 꺼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왕 하는 거 좀 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메뉴도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고, 쿠키도 만들어 보고 빵도 만들어 보고 싶었다.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원동력이 되었는지, 연말에는 그 어렵다는 제과 자격증에 합격했다. 주변에서는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거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또 그런가 싶기도 하고, 팀장님이 대표님은 항상 열심히 하셔서 불을 줄 알았다는 말 들으면 뿌듯하기도 하고. 투프렌즈에서 이제 제대로 된 빵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기쁘기도 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투프렌즈를 좀 살펴보자 싶어서 자몽, 딸기, 레몬 등 형형색색의 수제청부터 쿠키, 마들렌, 머랭 등 각양각색의 쿠키도 만들어 봤다. 신메뉴 하나 만들때마다 자활 식구들이 뭐가 더 좋을까 고민도 같이 해 주고, 중

종 커피 한 잔 하러 왔다면 찾아오기도 했다. 팀장님들도 항상 자활기업도 우리 사하자활 식구라며 챙겨주시고, 혼자 끙끙대고 있으면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 시기도 했다.

벌써 “투프렌즈 대표”라는 이름으로 불린지도 일 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하던 대표님 소리가 자연스러워졌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던 물음표는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느낌표로 바뀌었다.

그 순간순간이 고속도로처럼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듯 흔들리고 불안한 때도 있었다. 하지만 사하자활 센터와 자활 식구들, 그리고 소중한 나의 가족들이 항상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바퀴가 수렁에 빠지면 뒤에서 같이 밀어 주었고, 덜컥거리는 소리에 불안해하면 할 수 있다고, 같이 해 보자고 다 독여주었다.

자활 시작부터 지금까지, 나의 자활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모든 것이 처음 하는 것들이었고, 모르는 것도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 많은 도전의 순간들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모르는 건 배우면 되고, 처음 하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 질 것이다. 이때까지 그랬듯이 말이다.

오늘도 나는 오븐 앞에서 내 꿈을 굽는다.

향긋한 커피향, 달콤한 쿠키향. 마르지 않는 열정으로 쿠키를 굽는다.



입선

나에게 찾아온 세 번의 기회, 희망을 노래하다

김선미 경기



따르릉~~ 버스안에서 전화를 받았다. 며칠전 국가건강검진 검사를 받았던 병원이었다. 결과를 말하는데 머뭇머뭇..... “제가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게요” 검사 결과지와 함께 분당 차병원으로 가보란다.

분당 차병원에 갔더니, 거기서도 머뭇머뭇..... 내가 바로 “암이군요. 수술은 가능한가요?” 했더니, 너무 당당한 당사자라 그런지 놀래면서 암이란다. 더 정밀검사를 해야 수술 여부를 알수 있다고.....

검사하고 나서 결국, 콩알만큼도 남기지 않고 완전 전절제 위 자체를 모두 없애는 수술을 받았다.

지하방에서 혼자 지내면서, 아이들과 함께 살 날만 기다리면서 나를 열심히 살았다 했는데, 결국 암환자라는 타이틀까지.....

‘세상살이 삶이 뭐이래~’ 한동안 자포자기라고나 할까?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데, 아는 지인이 주민센터에 가서 수급이나 차상위나 그런 제도가 있으니 알아보라고 권하길래, 가서 작성하라는대로 작성했다.

며칠뒤 연락이 와서 가보니 의료 차상위라는 결과와 함께 두 군데 지역자활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중 교통이 조금 더 편한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로 찾아가 상담을 하고, 게이트웨이를 거쳐 서로좋은가게에서 첫 자활주민으로 시작을 했다.

| 암수술후 추수릴 시간도 없이 뛰어든 자활센터, 각진 돌이 원형석으로 성장하다.

이틀 실습후 게이트웨이 담당자에게 그만 두겠다고 했더니 1주일만 해보시면 안되겠냐고 나를 꼬신다. 지금 생각해보면 행복한 꼬임이 아니었나? 가끔 웃음이 나곤 한다. 서로좋은가게가 오픈을 하고, 팀장직을 맡으면서 정말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더 이상 내려갈 때도 없는 바닥을 친 사람들, 남보다 본인이 제일 더 힘들다는 사람들, 나만 더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수술하고 추스릴 시간도 없이 뛰어들은 자활센터, 나도 아픈데.... 그래도 내가 제일 나은 삶이 아닌가 스스로 위로하면서 하루하루 적응해 가면서 같은 사업단 주민 선생님들과 호흡 맞추기를 시작한다.

어느 곳이나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항상 존재하나 보다. 게다가 교육은 왜 그리도 많은지, 헤아릴 수 없는 각종 교육을 스폰지처럼 흡수하면서 뽀족했던 각진 돌이 어느덧 동글동글 원형석으로 변해가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주민 선생님들도 서서히 조직이라는 걸 알게 되고, 구성원들과의 소통이라는 단어와 친숙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전에는 나의 각진 돌 끝에 상처 받았을 다른 주민 선생님들... 지금 생각하면 늘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 우산이 되어준 사업단을 떠나 자활기업에 도전하다.

세월은 항상 빠르다.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러 자활 종료의 시기가 다가 오면서, 자활 사업의 꽃은 자활기업 창업이라 했던가, 자활기업으로의 제안을 받으면서 또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선다.

항상 우산이 되어 소나기를 피하게 해주고, 보호막이 되어주던 자활사업단과 지역자활센터를 한 발짝 떠나, 그야말로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하는 기업으로의 전환.

혼자가 아닌 공동 창업 운영, 어찌 보면 사업단보다도 더 힘들 수 있다는 생각과 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함께 창업 교육, 워크숍에 참여 안하고, 후발 합류하는 경우여서 더더욱 망설임이 길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또한 공동체 협동조합이니 해볼만하지 않을까? 도전 해보기로 하고 합류한다.

4명의 공동대표, 1인 1점포 운영, 나만의 색깔로 매출을 증대시킬 때 느끼는 쾌감의 묘미가 있다. 점포운영자의 성향이 매출증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나를 기준으로 내가 좋아하는 제품, 내가 선호하는 것은 제일 먼저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지역의 특성, 입지조건, 고객들의 선호도를 먼저 고려하는게 우선 순위라 생각하고, 여기는 주거지와 큰 대로변의 이면도로에 들어선 반상업지역이고, 혼자사는 혼족들이 많고, 외국인(중국인)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주변 상가점주들과의 돈독한 유대관계와 혼족들을 위한 다양한 메뉴,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알바를 고용, 나 또한 1주일에 한번씩 방문교사를 통한 중국어 학습을 받는 등 가능한 매출에 보탬이 되는쪽으로 점포운영을 해왔다.

하나 많지 않은 구성원들 간에도 불협화음은 생긴다. 나만의 것이 아니기에 더 내 것처럼 매출에 신경쓰는 대표가 있고, 그 반대인 대표가 있고... 흑자나는 점포에서 적자나는 점포 메꿔주기 바쁘고... 반복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한사람만 잘해서는 되지 않는데, 정말 쉽지 않다.

| 또 한번의 기회, 뒷모습이 아름다울 때 옮겨보자.

이 시기에 또 한번의 제안을 받는다. 지금까지의 운영체계와는 정반대인 1점포안에서 4명의 공동대표가 함께 일하는 구조. 결정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또 한번의 선택의 기로에 선다. 4년 줄곧 1등으로만 달려온 매출, 뒷모습이 아름다울 때 옮겨보자.

여기도 후발합류, 하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상황은 어찌리. 나는 대표들과 함께 일하러 왔지 알바들과 별반 차이없는 대표들과 일하러 온 게 아닌데, 서로 다른 환경을 접하는데 4명 모두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1점포에서 혼자 결정하던 상황에서 공동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는 낮은 상황을 접하는 나도 그렇고, 똑같은 대표라고 선장없는 배가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보내고 있던 기존 멤버들도 그렇고, 서로 경계하듯 바라보고 있던 상황이 부담스러워 그만두겠다는 의사 표현도 한다.

기업전문가와 함께 긴급회의를 통해 각자 생각을 듣게 되고, 약간의 실타래가 풀리는 듯 했으나, 뭔가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 지금 내가 상대하는 구성원들은 대표들이 아닌 알바스텝들하고 일하

는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니 조금은 여유가 생긴다.

자활센터의 지원으로 외부 컨설팅이 진행되고, 문제점과 대안제시를 통해 자활기업 의미 재인식과 더불어 조직 재정비를 할 수 있었다.

대표들과 회의를 하면서 표현이 다른거지, 함께 일하고 기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았기에 지금은 꽤 괜찮은 구성원으로 함께 변하고 있고, 얼마 전 대표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알바 스텝이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라는 말을 했고 그 말에 기분나빠 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가까워 지고 서로 다가가는 것을 느낀다.

또한 직원채용을 통해 대표들끼리 친목의 시간을 가질 여유를 갖게 되었고, 며칠전에는 성남자활기업협회에서 주최한 ‘부여역사기행’에 전원 참석하여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다시금 이 글을 쓰면서 믿고 따라준 대표님들께 감사함을 전하는 바이다.

| 왕성한 연대활동, 나 자신과 지역을 돌아보다.

늘 시간에 쫓기면서도 각종 사회적 조직의 한 일원으로서, 왕성한 연대활동을 하면서 성남해밀주민협동회 이사, 성남자활기업협회 부회장, 경기도네트워크, 자활기업 전국 연합회로, 매달 정기적으로, 1박 워크숍이던 행사를 소화하면서 내 지역만이 아닌 다른 지역의 특성을 보고, 그 지역의 어려운 점, 부러운 점, 힘든 점을 서로 공유하며,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의견제시나 대화를 나누면서 나 자신과 우리 지역을 돌아보게 되고, 지역에서의 내 역할이 뭔지를 다시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게 된다.

| 겁 없이 시작한 대학, 내 나이가 어때서?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인데~

욕심인지, 한 선배 멘토의 제안으로 겁 없이 60이 가까운 나이에 4년제 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고 현재 2학년 2학기에 재학중이다. 2학기 현재 7과목을 동영상 강의 출석, 중간고사, 레포트 제출하면서, 때로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지 하는 생각도 들곤 한다.

그래도 2년은 적응 기간이라 하면, 내년에는 창업 경영 컨설팅학과에 맞게 유통관리사, 창업상담사, 창업 컨설턴트, 점포마케팅 입지 선정등 창업에 관련된 자격증을 3가지 이상 취득하고 나면, 몇 년 전에 다른 사이버대에서 중단한 사회복지학과를 복수 전공해서 나머지 학점을 이수, 실버 사회복지사로서 내 할 일을 다시 발견하며, 후배들에게 동기부여 모델이 될 수 있는 나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2013년도에 자활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인정받는 한 기업의 대표로 폭풍성장할 수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준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에 감사하고, 더 많은 어렵고 힘든 선생님들이 거리에서 방황하지 말고, 든든한 자활 울타리로 들어와서 제 2의 인생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이글을 마친다.

입선

나의 과거 - 자활 - 현재와 미래

김민재 서울



| 0. 들어가기전에

부모님의 이혼 후에 엄마와 같이 생활하면서, '수급자', '조건부', '자활'등 낯선 용어들을 많이 접했었다. 그런 의무가 나에게 있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놀 생각하고, 일을 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수급자격을 유지 할 궁리 밖에 몰랐던 철부지였다. 2015년 8월에 군 전역을 하고나서, 그동안 몰랐던 엄마의 채장암 소식을 접했다. '전화할 때 말해주지, 왜 지금 말해주냐'는 식으로 원망만 한 채, 그저 엄마의 옆자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정작 자식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의사와 간호사, 병원에 의지하고 수급자 급여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2년 정도 투병하고 돌아가신 후, 그저 우울하고 허망한 느낌뿐이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그저 시간만 보내는 식으로 PC방과 오락실을 돌아다니며 백수처럼 지냈다.

그러다 이런 모습으로 계속 생활해도 의미 없으니 서울로 가자는 생각이 들고, 며칠 후에 노량진의 고시원으로 이사를 했다. 그렇게 막연하게 취업준비를 시작하면서 아르바이트도 병행하며 지내고 있는데도, 무기력함과 우울감을 떨쳐내지는 못했다. 그러다 2019년 7월에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그것을 접하게 되었다.

| 1. '자활', 참 낯선 단어... 그리고 알아보기

나는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과 '자활에 참여해야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취업준비하면서 알게 된 기초생활보장법령에 내용이 있다는 것 말고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그렇게 늘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잠을 청하려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자활'이라는 단어가 스쳐지나갔고, 바로 '자활'을 검색하여 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내가 짐작으로만 했던 그 '자활'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저소득층 및 독거어르신, 몸이 불편한 대상자분들을 위해 봉사하는 유형인 『사회서비스형』, 노동시장으로 투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유형인 『시장진입형』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희망나눔클린사업단부터 시작하여 티끌모아사업단, 유료 빨래방사업단 등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에 흥미가 생겼고, 무급인 줄 알았지만 기존에 내가 받고 있던 급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여가 지급이 되는 것에 놀랐다.

취업에 대한 불안감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간절함 내지 집착(?)으로 구청 자활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자활에 참여하고 싶다고 표현하였고, 며칠이 지나 자활센터에서 참여 전 상담을 위해 내방해달라고 연락을 받았다.

| 2. 자활 초입기 - 상담, Gateway사업, 자산형성사업의 시작

연락을 받고 자활센터에 방문하기 전에는 분위기가 삼엄하고 어두울 것으로만 생각하여 두려웠었는데, 화사하고 친근한 분위기여서 조금 놀랐다.

뒤이어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담당 선생님이 상담실로 안내해주셨고 인적 사항, 생활실태, 문의사항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 중에서 지금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너무 궁금했는데, 참여 하게 되면 일 반회사처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진행한다고 하여, 자활에 참여하려면 취업 관련 스터디그룹을 모두 시간조정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알아봐야한다고 답변해주셨다.

그 후, Gateway사업을 통해 채무상환 등 신용회복관련제도, 임대주택, 자산형성사업 등 각종 정부지원 사업을 안내받고, 서로 칭찬해주기와 자기소개, 간단한 그림을 통한 심리분석프로그램으로 몰랐던 나 자신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고, 효율적인 소비활동 교육을 통해 자립에 대해 첫 걸음을 뚫 수 있게 되었다.

사업단 배정 전에 각 사업단을 돌아보며 사업단 선택에 있어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마침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여서 흥미를 가지게 하였다.

약 4~5개 사업단을 방문하는 데, 방문하는 곳 마다 일에 열중하는 모습과 마침 쉬는 시간이어서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는 모습 등에서 볼 수 있었던 공통점이 표정과 말투에서 생기가 넘치고, 모두가 즐겁게 일하는 모습에서 자활근로를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고, 희망나눔 클린사업단으로 배정을 마친

상황에서 자활근로 첫 날이 점점 다가왔다.

그리고, 전부터 조금씩 아르바이트를 한 소득신고금액이 가입조건을 만족하게 되어 자활센터 담당자님과 구청 자활담당 주임님, 동 주민센터 담당하는 분의 도움으로 자산형성사업에 가입도 할 수 있게 되었다.

| 3. 자활참여, 살아있는 복지현장 학습이자 기회의 장

첫 근로 날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소득약 희석, 배합방법부터 당일 대상자분들께 연락을 돌리는 법, 세탁요령, 소독 팀으로 들어갈 경우 소독약 분사 위치 등 정신없이 배워나갔다.

그렇게 둘째 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근무를 시작했는데, 아침에는 세탁물 수거 및 배달, 오후에는 소독조 투입으로 근무를 달리하여 진행하였다. 사업단 차량의 맨 뒤의 짐칸에 가득 쌓인 빨랫감을 사업단으로 옮겼는데, 세탁조 선배님들이 자연스럽게 분류하여 순서를 정해놓고, 대형세탁기에 세제를 투입하고 빨랫감을 넣고 건조기에 돌려서 다시 포장하는 작업을 여러 번 하는데 지친 기색 없이 늘 활기차게 하는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다.

소독 팀으로 근무하면서 하루에 10가구정도 방문소독 후에 소독약 통 청소, 방문대상자 명단 작성 등 작업을 하고 하루 일과의 마무리를 지었다.

그렇게 1주, 2주가 지나 약 1달이 지났을 무렵, 연락을 돌리면서 대상자 분의 사정을 꿰뚫고 있는 모습과 대상자 어르신께 자연스레 안부를 묻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 모습을 여러 번 보니 ‘나중에 내가 만나야 할 대상자 분이 있다면, 그 분에 대해 이해하고 자주 접촉해야지만 선배들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

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많이 만나고, 그 분들과의 이야기가 얼마나 쌓였는지 나는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또한 '대상자의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지만, 어떤 것을 주로 원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어디든지 취업이 되더라도 대상자에 대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같은 사업단에서 일하는 한 선배가 나에게 "지금 소독을 받고, 세탁을 받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원하거나 추천을 받고 진행하지만, 그렇지 못한 다른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는 물음에 깊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속담처럼 그저 살기위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참여했지만, 대상자를 최 접점에서 응대하는 사업단의 특성이 나의 마인드를 변화시켰다.

단순한 자활근로를 떠나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대상자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깨닫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 취업 후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을 먼저 느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사업단 자활근로 외에도 자활센터에서 진행한 자립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스트레스 완화 교육 등 모두가 유익한 교육도 있었고, 선배들의 권유로 알게 된 푸드마켓 이용 등, 복지혜택에 대해서도 하나, 둘 알아가기 시작했다.

특히나, Gateway교육 중에 알게 된 주거취약 전세임대를 신청했는데 대상자로 선정되어, 고시원에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고, 사업단 선배들을 초대해 집들이도 하는 등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또한, 취업에 대해 불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어떻게든 잘 될거야’라는 마음가짐으로 최대한 여유를 가지며 자활근로를 하던 중, 내년 1월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훈훈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였다.

| 4. 나에게 많은 것을 선물해준 자활사업

새 해가 되어 취직한 직장에서 맡은 첫 업무들 중 ‘자활사업, 자산형성사업’을 받자, 그동안 경험한 것이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느꼈기에 미소를 지었다.

그 후, 회사의 급여를 받으며 수급자에서 벗어났지만, 자활참여 대상자 분들을 한 분 한 분 상담을 진행하며, 자활사업에 대해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바꿔주고 싶고, 근로를 하시는 수급자 분들께는 자산형성사업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주거복지제도, 푸드마켓 등을 사정이 어려운 지인들과 대상자 분들께 소개해드리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들고, 버젓한 전세집도 마련하고, 자산형성사업 통장을 개설하여 경제적인 디딤돌도 마련하고, 직장 업무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먼저 습득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풍부하게 만들어준 자활사업,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일이겠지만, 내 삶에 있어서 터닝포인트가 되어준 고마운 제도이다.

만약, 자활사업을 접하지 않았다면 나의 삶과 마인드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좋은 추억과 많은 혜택을 받아감에 있어, 이 수기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

자활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닌, 수급자에서 벗어난 직장인의

로써 다시금 시작한 이 시점에 누군가가 나에게 ‘자활’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나 자신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완벽한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것이다.

자활에세이 18번째 이야기
한걸음씩 더 나아가는 나의 꿈

제2부

공로수기*



최우수상

위기를 기회로

이미레 광주



누군가는 자활에서의 10년은 긴 시간이 아니라고 했다. 그만큼 자활은 역동성과 긴장감으로 일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자활인으로서 10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난 어떻게 살아왔을까? 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려 한다. 자산형성지원 사업 6년 6개월, 자활사업 담당 4년차를 보내고 있다.

| 첫 번째 이야기.....

4년이라는 시간동안 기업을 비롯한 시장형사업단 외 여러 사업을 담당했고, 애착이 가는 사업, 유난히 힘들었던 사업도 있었다. 그중 ‘파송송엄마손(김치&반찬)’과 ‘베이커리딜리슈(제빵)’사업은 나에게 특별한 사업단이다.

현재 시장형 사업단으로 2021년 1월이면 자활 기업 출범 준비를 하고 있는 파송송엄마손 사업단 이야기 이다. 2015년 신규사업으로 시작되어 현재 6년차가 되는 동안 2017년 센터로부터 처음으로 부여받은 나의 첫 사업이다. 인수인계를 받고 난 후 나오는 건 한 숨 뿐 이었다.

파송송엄마손은 담당실무자가 자주 바뀌는 바람에 매출은 사회서비스형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였고 폐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사업단이었다. 쉽게 사업을 포기 할 수 없었던 우리는 여러 번의 논의 끝에 마지막 1년만 사업을 해 보고 존폐문제를 결정하자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사례관리팀에서 사업팀으로 이동을 한 나에게 처음으로 부여된 파송송엄마손 사업단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큰 부담으로 다가 왔다.

잘 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매출을 올려야 할까?

몇날 몇일 잠 못 이루며 고민 하였다. 우선 생각나는 대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 하나 메모 해가며 사업단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업장으로 간 첫 날... 잊을 수가 없다.

참여자분들의 눈빛은 냉랭하였고, 이번에도 잠깐 말고 있다가 또 담당이 바뀌겠지 라는 분위기는 나를 첫날부터 숨 막히게 하였다. 처음 사업단이 만들어지면서 사업단 반장을 하고 계셨던 김○○ 참여자의 보이지 않은 경계심이 사업단 참여자들과 융화되기 위한 나의 노력을 더 힘들게 하였다.

김치를 생산하고 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단임에도 사업장 여건은 무척 열악하였다. 인적이 거의 없는 후미진 곳에 사업장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 김치를 사겠다고 오는 손님은 찾아 볼 수도 없었고 사업장도 김치를 전시해놓고 판매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안정적이지 못한 김치 생산능력은 김치 맛이 들쭉날쭉하였고 겨우 자리를 잡아가던 사업단은 매번 위기가 찾아왔다.

사업단 전체 참여자 누구나 일정한 김치 맛을 낼 수 있도록 레스피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고 맛좋은 김치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 하였다. 1년 동안 지역에 있는 김치공장으로 파견근무도 나가고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를 잡은 업체에 방문하여 조언도 들어가면서 노력한 결과 존폐를 논했던 사업단이 시장형 사업단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2018년 파송송엄마손은 새로운 참여자분들로 구성 되었고 현재 반장을 맡고 있는 최○○ 참여자를 만남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봄, 가을 지역행사 가 열리는 곳이면 찾아가 현장에서 직접 김치를 비비는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행사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으며 더불어 매출도 행사 참여 업체들 중에 단연 으뜸 이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18년, 19년 파송송엄마손 매출은 승승장구 하였고, 센터 내 주력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년 4분기 에는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김장나눔 행사 원자재(절임배추 외 기타) 납품으로 매출은 나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어 섰다.

김장나눔행사 원재료 납품을 하다보면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5시부터 행사장으로 출근하여 준비를 해야 했지만 늘어나는 매출은 우리를 신나게 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점점 안정되어가는 2019년을 보내면서 다음해는 더 많은 일들로 바빠지겠지 라는 기대를 안고 시작한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었다.

하지만 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 모든 경제가 정체되면서 자활사업도 휴관이 시작되었다. 휴관기간 중에도 고정

거래처 김치 납품은 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보다 매출은 더 하락하였고 목표했던 수치보다 훨씬 미달 되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 서로 위로해 보았지만 2021년에는 기업출범을 앞두고 있는 파송송엄마손 사업단은 센터 내 다른 사업단보다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사회복지기관 휴관이 계속되다보니 저소득층 중에서도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이 지원받고 있던 식사나 반찬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에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하였고 반찬서비스 제공하는 사업 일부분에 파송송엄마손 사업단에서 참여 할 수 있게 되었다.

7월~8월 한여름 무더위와 긴~ 장마가 우릴 힘들게 하여도 매일 반찬을 생산하고 배송까지 힘든 일과였지만 코로나로 힘든 어르신들에게 반가운 방문자가 되어 안부를 여쭙고 반찬을 고맙게 받으신 모습을 볼 때면 땀흘리며 뛰어다니는 우리에게 더위를 날려버리는 상쾌한 바람과 같았고, 보람을 안겨 주었다.

많은 업체들의 불황속에서도 코로나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훨씬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 하고 있는 분들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위기 속에 또 다른 기회로 다가 왔다.

우리구 지자체에서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하였고 지역 자원(지역자활센터)과 연계한 통합돌봄서비스 내 영양도시락지원사업에도 참여 하게 되는 행운이 우리에게 왔다.

오늘도 새벽 출근을 하고 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은 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일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맛있게 식사 하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건강하고 신선한 반찬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사업단 폐업을 코앞에 두고 말았던 파송송엄마손 사업단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21년에는 자활기업으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벅차오른다.

| 두 번째 이야기.....

센터에서는 매년 신규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 한다. 나는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빵 사업을 제시하였으며, 그 사업은 나에게 맡겨졌다. 파송송엄마손 사업단은 기존에 있던 사업을 인계받았던 사업단이지만, 제빵 사업단은 내가 처음부터 구상하고 계획하여 진행하는 나의 자식 같은 사업단이 되었다. 사업단의 상호인 ‘베이커리딜리슈’도 나의 작명이다. 딜리슈는 ‘맛있는’이란 뜻도 있지만, 오다가다 들리(슈)라는 숨은 의도가 있다.

2018년 3월 시범사업을 거쳐 신규 사업을 시작 하였다. 시범사업기간동안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2개월 간 기술교육을 받긴 하였으나 전문기술력을 갖추기에는 역 부족이었다. 우선 사업단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반장을 중심으로 2명에게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사회복지기금 자활활성화사업’지원으로 참여자 기술습득을 위해 제빵기능사 자격과정 3개월 지원하였다. 하지만 소수의 인원의 기술 습득으로는 매일 빵 생산하는 작업은 힘겨웠다.

일의 편중을 분산시켜 고른 업무분장을 위해서는 전체사업단 참여자의 교육이 필요하였다. 광역자활센터와 호남대학교와 연계한 ‘2019년 경영관리 지원 사업 신청을 통한 기술전수컨설팅’ 교육을 마치고 난 사업단 참여자분들의 기술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 그 인연으로 19년 8월 호남대학교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빠른 기술 습득을 위해 모두들 부단히 노력 하였다.

지속적인 교육지원 결과 전체참여자중 40%가 국가자격을 취득한 성과를 내었다. 앞으로 사업단 구성원 모두가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1년에 2명에게는 자격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우리는 대형프랜차이즈 제과점과의 경쟁은 사실 어렵다는 판단을 하여 좀 더 색다른 판매 전략을 갖기 위해 다양한 빵 종류를 생산하기보다는 단품종의 빵 생산으로 전문성을 추구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모았다.

‘당일 빵 생산 및 판매’전략으로 전단지 및 스티커를 통한 홍보를 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매장은 신선한 빵을 판매하는 곳 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근거리 초등학교 학생 아침식사용 빵을 구입하러 오신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예비군 간식 빵을 주문받아 납품 하고 있으며, 소매 손님도 시간이 지날수록 단골 고객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

꾸준한 교육을 통하여 열심히 노력한 성과는 매출로 연결되었고, 매일 이른 아침 출근하여 빵을 만드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는 빵을 만들고 있다. 베이커리딜리슈에서 가장 자신 있게, 누구나 맛있

다고 인정하는 빵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파배기 튀김과 팔앙금 도넛’이다.

2021년에는 시장형사업단으로 전환이 무난할 것이며 이후 자활기업 출범까지 지금의 열정 그대로 창업을 준비 할 것으로 본 다. 자활기업 창업은 커피와 빵을 결합하여 준비 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장형사업단을 거치는 동안 커피와 결합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빵과 커피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자활기업 창업을 할 생각이다.

| 세 번째 이야기.....

사업운영을 하다보면 위기는 항상 일상처럼 시시때때로 찾아온다.

사업운영에 있어 실무자의 열정과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담당팀장은 반장을 비롯한 사업단 구성원에게 화합과 격려를 통하여 역량강화를 위해 기회를 제공하고 지지해 주어야 하며 사업단 주체는 참여자이며 담당 실무자는 보조 역할자로서 사업단 구성원 각자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다.

실력이 없고 쓸모없게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분명히 그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한다. 다양한 사연과 상처들을 갖고 있는 자활참여자이지만 한데 모여 더불어 삶으로써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자신의 맡은 일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면 성공적으로 자활·자립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우리센터가 전국 자활 Top이 되는 그날까지.....

“생산·협동·나눔으로 더불어 함께 실천하는 자활복지공동체” 슬로건 아래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내일은 또 다른 희망을 품고 새로운 꿈을 향해 하루하루를 참여주민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리라.....

우수상

자활이 만들어내는 ‘함께’라는 가치

한태욱 부산



| 어린시절,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접했던 ‘함께’라는 삶의 가치

20년 전쯤이었을까. 내가 초등학교생이던 어느 추운 겨울밤, KBS 채널을 통해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하는 한 방송프로그램을 접했던 것이 기억난다. 당시 프로그램에서는 혹한의 날씨에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허름한 판잣집에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던 독거어르신들의 집을 봉사자들이 방문하여 집 보수 및 각종 후원물품 등을 지원하는 모습을 촬영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접한 내 가슴이 웅장한 모를 뭉클함으로 벅차올랐던 기억이 오랜 시간동안 또렷한 형태로 가슴 한편에 남아있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단순히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 활동으로 비쳐질 수도 있었겠지만 나에게서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를 지탱해주고 격려하며 역경을 극복해나가는 우리 민족의 미덕을 엿볼 수 있는 광경으로 느껴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실체가 없었던 나의 꿈도 분명한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었다. 사춘기 시절 불분명한 생각들로 방황기를 겪었을 때 그 모습은 어둠 속 작은 등불이 비춰준 길처럼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게 되었으니까 말이다.

| 처음 맡게 된 자활업무, 다양한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삶을 변화시키다

2017년 여름, 처음으로 주민센터에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은 설렘과 막연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 아닌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서 과연 내가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함께 나를 믿고 본인들의 삶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도 작용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당시 이 업무가 내게는 가진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역량의 심판대와 같은 셈이었다.

8월의 어느 더운 날, 통장님의 적극적인 의뢰를 받고 관내에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모자가정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해당가구에는 모와 딸 1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전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 및 연락두절 등으로 방치되어 있었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 생계 및 양육문제를 힘겹게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당시 대상자에게는 세상에 대한 불신과 가정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죄책감으로 자존감 상실과 불안한 정신상태 및 부족한 소통능력 문제까지 겹쳐 있었으며 이로 인해 어디서부터 서비스를 연계해 나가야 할지 막막함 그 자체인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동굴 속

에서 손전등 하나 없이 나아가야 하는 고난의 순간이었다.

허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였던가. 비록 대상자가 딸의 양육에 대한 이해도와 친정으로부터의 자립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여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어떤 부모에게도 뒤지지 않았으며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현실적 어려움을 탈피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대상자는 그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딸을 위해 일어서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이후 나는 그 대상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복지마인드를 바탕으로 자활사업 지침을 꼼꼼하게 알아보기 시작했다. 대상자는 그 누구보다 자립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소망을 이뤄주기 위해서는 내가 함양하고 있는 제도적 지식이 무엇보다 필요한 순간이었으니까.

나는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사례관리 가구로 지정하여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대상자의 딸을 구청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으로 연계하여 또래 친구들과의 학습적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었고 대상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 신청 절차와 업무 시스템을 설명하는 등 자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활 제도의 시스템을 체감하는 게이트웨이 기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자활 참여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자립에 대한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대상자의 가정은 불과 6개월 이라는 기간 안에 완전한 자립에 성공할 수 있었고 과거의 상처가 남긴 트라우마로부터 상당 부분 해방될 수 있었다. 이는 대상자의 구직 욕구와 가구 여건 및 자활센터의 협력과 연계기

관 정보 제공에 있어 동료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꾸준한 모니터링 등이 맞물려 달성해낸 쾌거였으며 이 사례는 내가 업무를 맡은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크게 회자되는 보람거리가 되었다.

그밖에도 동에서 근무하는 자활참여자 1명을 안부확인 및 가사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을 선별하여 가사도우미로 파견함으로써 자활사업의 성과 향상 및 복지대상자들의 체감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참여자가 지역 자활센터 가사간병 사업단에 진입할 수 있게끔 교두보를 마련해 주었고 또 다른 자활참여자 중 1명에겐 근래 상위 자활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진입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등 다양한 시도와 연계를 통해 업무에 대한 깊은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 결코 수월하지만은 않았던 자활인력 관리

내가 관리해야 할 자활참여자 인원은 오전에만 출근하여 동의 환경정비를 책임지는 근로유지형 9명과 행정복지센터에 출근하여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에서 각종 업무수행을 지원해 줄 종일형 복지도우미 1명을 포함해 총 10명이었다.

이들의 근무상황 체크, 급여 계산 등 관리해야 할 것들이 결코 적은 게 아니었는데 특히 근로유지형은 여러 명이 함께 모여 환경정비를 수행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사람들 간의 의견충돌과 일부 비협조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참여자들의 행태까지 관리자가 모두 나서 조율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업무적 스트레스는 예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염려했던 상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국 터지고 말았다.

늦겨울에 접어든 2월의 어느 날, 아침 출근시간부터 시끄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 자활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들과의 근로관련 의견충돌로 인해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었고 이에 환경정비 도구들을 가차 없이 집어 던지면 서고 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패를 일삼기 시작했던 것이다.

업무 시작 전에 발생한 일인지라 정확한 이유도 파악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나는 우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흥분한 참여자의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다. 사실, 그 참여자는 전임자가 자활업무를 맡았던 시기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었기에 결코 좌시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결국 그 참여자는 그 길로 무단조퇴를 하였고 이후로 이틀 동안 무단결근을 하고 말았다. 그로 인해 다른 참여자들의 불만도 진정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사태가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결국 나는 사무장님께 이 일을 보고하여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자활참여자들은 대부분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수급자들이었기에 조금이라도 그들이 삶의 의욕을 가지고 참여해주기를 바랐던 사무장님은 행패를 부린 그 참여자를 다른 참여자들과는 다른 관내 어린이놀이터, 공공체육공원 등 단독으로 환경정비가 가능한 현장으로 배치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셔서 해당 참여자는 계속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일부 참여자들의 비협조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는 관리자뿐만이 아닌 다른 참여자들의 작업에도 크나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관리자로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 자세로 그들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고 받아들이야 했다. 그들의 삶의 의지를 독려해서 자활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안고 가야 할 책임이었으니까.

| 폭염과 재난으로 겹치는 역경들, 단결로 ‘함께’ 극복해나가는 자활사업단

2020년 여름은 각종 피해의 여파들로 인해 고난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안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민원인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었고 밖으로는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끊임없는 홍수와 건물 파손 등으로 인해 동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그야말로 혼돈의 향연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상황에서 동의 환경정비를 상당 부분 책임진 것이 자활사업단이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관리자와 자활참여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경이에 가까운 단결력을 보여주었던 것이었다.

먼저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8월 중순경. 관내 아파트 정문 앞 대로변에 위치한 삼각지 일대에 불필요한 잡풀 및 관목들로 인해 해충들의 기승으로 주민들의 불쾌지수가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구청 산림녹지과에 협조요청을 하여 해당 부서 작업자들과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합심 하에 환경정비를 실시, 그 결과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

8월 말과 9월 초순경에는 연속으로 들이닥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잇따른 상륙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낙엽가지들과 건축물 잔해들이 도로를 뒤덮었는데, 우선 자활관리자인 나는 구청에 환경정비 물품 지원을 요청하여 자활근로자들이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장 없도록 적극 협조하였으며 10명도 채 되지 않는 자활참여자들은 환경정비라는 본인들의 업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 끝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보다 빠른 시간 만에 해결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적 성과 뒤에는 지속적인 자활교육이 뒷받침되어 있었다.

우리는 매달 또는 수시로 정기적인 자활참여자 집합교육을 개최하여 작업요령 및 안전사항 안내를 통해 자활의욕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 참여자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손 씻는 법 등 위생관리 방법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올바른 조치 설명으로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현재 자활시스템에 필요한 개선사항 및 그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참여자들의 사기 진작과 자활의욕 향상을 함께 도모했다.

| 동반자적 입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함께’라는 가치

이처럼 관리자와 참여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돼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작업 지시를 내리고 받기만 하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동질감을 구축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적 관계라는 사실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이 모이는 곳에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우리 자활사업단은 초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반자적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치우치지 않는 단결력을 유지해 나간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천군만마와 같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아직 헤쳐나아가야 할 길이 많은 우리지만 앞으로도 ‘함께’라는 삶의 가치를 간과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잘 이겨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수상

모두를 웃게 하는 주거복지 맥가이버

김원철 경기



2018년 C't 박○○씨(76년생, 남/이하 C't)는 개인적으로 인생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아’ 의욕있게 시작했던 편의점 사업이 실패하면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제대로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배우자와의 불화가 발생하였고 이혼을 생각하는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특히 공부에 흥미를 가진 두자녀의 학원 지원을 중단하면서 생긴 갈등으로 이전까지 최고의 아빠라고 자랑스러워 하던 아이들과의 소통 단절로 그야말로 가정은 해체의 수순을 밟고 있었다.

그 당시 C't의 꿈은 ‘밥상’을 가지는 것이었다고 한다. 스스로 투명인간이 되어 가족들과 오붓하게 식사를 하지 못하고 조그만 ‘옷방’에서 한 두 가지 반찬에 막걸리로 끼니를 때우며 자신을 학대하는 상황에서 조그만 밥상조차도 사치일 만

큼 그는 잉여인간이었다.

1년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러다 폐인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는 순간이 되자 그는 공포감에 떠밀려 무작정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청하게 된다.

자활센터 근로를 안내받고 상담을 위해 첫 방문을 했던 순간을 C't는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데 가슴속에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가면서 제대로 된 숨을 쉬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게이트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주거복지사업단에 배치되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 집에서 형광등 몇 번 교체한 게 전부인 ‘초딩’ 기술력과 장기간 운동 부족, 음주로 인한 저질 체력으로 선배 참여자들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힘들었던 것이다.

내가 사업단 실무자로 배치되면서 C't를 마주하게 된 것도 이 시기였다. 큰 덩치에 충청도 사람 특유의 유순함으로 믿음직한 사람, 반대로 술을 좋아하고 의지력이 약하고 소심한 사람, 나에게 있어 C't 이런 양가적인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묘한 사람이었다.

C't와 첫 상담을 하면서 장시간에 걸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의 인생 스토리도 중간 중간 전달을 했다. 힘들었던 몇 년간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울었다. 몇몇한 아빠가 되고 싶다고 했고 배우자와는 예전 좋았던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일방적이 아닌 쌍방향의 In-Take로 서로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공감하니 자립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는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우선 우리는 자립을 위해서 C't 자신을 객관화시키는데 합의하고 최우선 과

제로 음주근절, 적극적태도, 자산형성, 기술력배양 등 4가지 항목을 도출하였다.

힘든 시간 혼술로 버텨온 C't 입장에서 음주문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첫사랑과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검사를 받아 보고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음주량을 줄이기로 했다. 검사 결과는 역시 심각한 알코올 중독 상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에서 계속 지면 전쟁터를 옮겨라'라는 속담에 착안하여 술자리를 만들지 말고 피하라는 조언을 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사업단 술자리 모임에 참석하지 않기, 동네친구 만나기 않기를 실천하였다. C't는 현재 월 1~2회 정도로 음주 횟수를 줄였고 그 대부분은 한 달에 한두 번 고향에 내려 갈 때 부친과의 '격식있는' 술자리로 음주문제에서 신뢰할 만큼 자유로워졌다.

소극적 태도는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일을 경험해 보고자 하는 지킬박사의 이면에 있는 C't의 하이드씨이다. 남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성격을 본인도 극복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심플하게 용기를 낼 기회를 주기로 했다. 매주 금요일에 있는 센터 전체 주간모임에 사업단 고정 발표자로 50~60명 앞에서 1분여 시간을 더듬더듬 채워나가는 진땀의 시간을 수차례 겪은 후, 현재 C't는 사업단의 전담관리자로 자신의 목소리로 모두를 이끌고 있다.

명품도 아닌 고작 밥상을 살 금전적 여유도 없던 C't에게 '돈'이란 이제 더 이상 자신과 무관한 단순한 오브제 라고 생각할 것 같았다. 계획이 없는 자활참여자 대부분에게 돈은 술과 바꿀 수 있는 교환체에 불과하다. 우선 가입한 내일키움 통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만기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다음으로 월급여를 모두 배우자에게 주고 용돈을 받아 쓰는 형태로 관리패턴을 바꾸면서 가장으로서의

기능 회복과 무절제한 소비를 원천 차단하기로 하였다.

현재 C't의 용돈은 20만원이며 때에 따라 이월도 할만큼 절약이 몸에 배었다.

마지막으로 기술력 배양은 자립계획의 핵심이자 가장 난제라는 부분에 서로가 공감했다. 먼저 내일키움통장 수급 조건과 자격증수당 수급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는 국가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도배기능사 보다는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타일기능사 자격증으로 도전 종목을 선택하였고 내일배움카드 활용을 통해 외부전문학원에서 6주간 땀을 흘렸다.

시험을 위해 필요한 장비는 일괄로 사업단에서 지원하였으며 처음으로 사업단에서 도전하는 자격증 분야라 다른 참여자들도 응원을 많이 하였다. 결과는 제일 먼저 과제를 제출할 만큼 자신감있는 합격이었다. 목표 달성 이후에도 자만하지 않고 주말에 시간을 내어 인테리어 가게를 하는 지인을 통해 다양한 시공현장을 참관하며 시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현재 C't는 사업단 내 참여자들의 '학원장'으로 불리우며 족보같은 '시공참관 노트'를 기반으로 아낌없이 시공레시퍼를 전수하고 있다.

C't와 만나 첫 상담을 한 지 이제 2년이 되었고 그는 약속하였던 4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모범적이었다. 시공 횟수가 늘어갈수록 체력은 30대 수준을 되찾았고 게으른 삶은 부지런한 근육으로 변했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없었다' 라는 어느 배우의 수상소감처럼 그의 놀라운 성과에 실무자로서 젓가락 반쪽 정도 도움을 준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늦은 나이에 자활기관 실무자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늦깎이 사회복지사인

나에게 지난 2년의 과정은 성장통을 겪는 시기였다. 효율적으로 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 고민해야 했으며 참여자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폭넓은 공부의 필요성도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C't는 나에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뮤즈'와 같은 존재였다. 문제 해결을 위한 영감을 제공하였고 꾸준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만 머물던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까지 나를 휘감고 있던 '이기적'이라는 허물이 조금씩 벗겨지고 '이타적'인 사람으로서의 긍정적 변이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낀다.

수기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거창한 복지담론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생각하는 참여자의 자립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상담한 자활 참여자의 대부분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연한 동정이나 연민보다는 자신을 객관화하게 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데 더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심스럽게 C't와 실무자인 나와의 '파트너형 관계모형'이 자활기관에서 더 활성화되고 보편적이 되기를 희망한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

영화 올드보이에 나오는 엘라 월콕스의 고독이라는 제목의 시로써 나에게는 오래 전부터 마음 속에 각인되어 있는 문구이다.

C't와 맨 처음 상담을 하면서 눈물짓던 그를 보며 맴돌던 문구이기도 하다.

방 안에서 신세한탄을 하며 울음을 삼키던 그는 이제 모두를 웃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자활은 현재 민관협력사업으로 시와 노인통합돌봄사업을 추진

하고 있고 그 중 주거환경 개선부문을 실무자인 나와 주거복지사업단이 전담하고 있으며 C't가 현장시공을 총괄하고 있다.

불과 1년 반만에 초딩 기술자에서 어설픈 인테리어 전문유튜버 보다 더 실력 있는 기술자로 변화한 C't는 도배, 장판, 욕실리모델링 등 종합집수리와 노인, 장애인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시공하는 베테랑이 되어가고 있다.

변화된 C't가 웃음을 찾으면서 자녀들도 웃고, 사업단 참여자도 웃고, 서비스 수혜를 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웃으면서 나비효과처럼 지역사회가 건강해지고 있다.

마침내 그는 모두를 웃게 하는 맥가이버가 되었다.

P.S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웃게 하기 위해 그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우수상

우리는 함께 성장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이원희 부산



| 설레는 사명감을 안고

2019년 파릇파릇한 6월, 면접을 보기위해 사상지역자활센터에 첫 방문을 했다. 센터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표어'우리는 함께 성장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나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면접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내내 생각이 났다.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한다니 엄청난 사명감이다...'다음 날 합격 통보를 받고선 떨리는 마음을 안고 첫 출근을 했다.

센터장님의 신입직원 교육을 통해서 나를 설레게 했던 표어에 대한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가. 그건 너무 이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참여주민과 우리 실무자들이 같이 울고 웃으면서 함께 성장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과정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마음으로 업무를 임했으

면 좋겠다.”라는 센터장님의 말씀에 뜨거운 열정이 솟구치며 설레는 사명감이 생기는 듯 했다.

| 자활사례관리사의 기초다지기

‘자활’, ‘사례관리’라는 단어가 모두 생소하였지만, 차근차근 업무를 익혀나갔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참여주민 분들께 새로운 사례관리사인 ‘나’를 알리는 일이었다. 작은 유인물을 만들어 각 사업단을 방문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활사례관리사를 찾을 수 있도록 곳곳에 부착하였다. 어색하지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친밀해지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주민 분들께 다가갔다.

이전에 진행되어왔던 사례관리를 이어서 진행하기 위해 이전 자료를 살펴보니 진짜 내가 사회복지 현장에 온 것이 실감이 났다.

장기부채로 신용불량자의 삶을 살고, 자녀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전전공공하고, 이혼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나도 모를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내가 이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그때부터는 좀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역량을 높여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자활사례관리 기초과정 교육, 자활사례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참여자 정신질환의 이해와 면담기법 교육, 해결중심 모델을 활용한 사례관리 실천 교육 등 개설되는 교육마다 내게 필요한 부분의 교육이 있으면 참석하여 역량을 키웠

다. 매월 구청에서 개최되는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효과적인 사례관리 진행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 복지이음사업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할수록, 참여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의지도, 역량도, 환경도 모두 다른 참여주민의 진짜 욕구를 알고 싶어졌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욕구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복지사업인 ‘복지이음사업’을 실시하였다.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지원금이 필요했기에, 외부지원사업 연계지원과 지역복지기관과의 업무협약에 힘을 썼다.

1) 아름다운가게 ‘희망나누기 의치지원사업’

2020년도 상반기 욕구조사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욕구는 의료비 지원, 그중에서도 ‘치과치료’였다. 치과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 큰 목돈이 요구되며, 관내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틀니 등 지원은 가능하나 65세 미만의 청장년층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해버린 채 방치해두고 있었으며 통증으로 인한 불면증, 소극적인 대인관계, 경제활동 방해 등 삶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치아를 치료한지는 8년이 넘었어요. 마지막 치료할 때도 돈은 없는데 치통이

너무 심해서 그냥 발치해버리고 이후에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밥도 제대로 못 씹고 그러다보니 소화도 안돼요.”

“잇몸이 다 녹아서 치아가 대부분 흔들려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치료 할 수 있을까요...?”

참여주민들의 치아 상태는 대부분 치료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금전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고 통증을 견디며 살고 있었다. 치과치료 지원이 가능한 외부지원사업을 조사해본 결과 ‘희망나누기 의치지원사업’을 찾게 되었고 센터 내부 선정기준에 따라 5명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였고, 그 중 3명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미선정자(10명)는 2020년 지역특화사업을 치과치료사업으로 기획하여 치과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였다.

치과치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지원대상자들은 밝은 미소로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내 앞으로 이제 음식 씹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살거요!”

“선생님 저 이제 입 안 가리고 웃을 수 있어요!”

“일할 때 치통 때문에 계속 진통제를 달고 살았는데, 이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신한 희망사회프로젝트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커피사업단에 근로하시는 참여주민 분께서 센터로 전화가 왔다.

“사례관리 쌤 맞습니까...? 아 제가 지금 큰 일이 났는데 선생님 생각나가지고 전화했습니더...”

“아 네 저예요 선생님~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그저께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집은 어찌어찌 구해도 뭐 당장 이사할 돈이 있어야 말이지예... 아들이랑 길바닥에 앉게 생겼습니다... 밤에 한 숨도 못자고 그냥 너무 속이 답답해서 하소연이라도 해야 하나 싶어서 연락드려봤습니다...”

집주인의 갑작스런 이사요청에 이사비용이 가장 걱정이라는 것이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보증금으로 이사할 집은 어떻게든 구하면 되지만 이사를 위한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전화를 끊고선 자원을 연계할 외부지원사업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신한 희망사회프로젝트‘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을 찾았고, 신청 가능함을 확인한 후 지원절차를 밟아 나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 발표가 나자마자 선생님께 빨리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다.

“선생님! 이사 날짜 나왔어요?”

“이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아직 이사비용이 마련되려면 좀 더 기다려야합니다...”

“이사 당장 하실 수 있으세요! 외부에서 이사비용 지원해주는 곳이 있는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셨어요!!!”

“네? 그게 참말입니까? 아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로예!”

사실 사비로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내 일일뿐인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연거푸 하시고, 그걸 듣는 나는 몸 둘 바를 몰랐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했다. 선생님은 무사히 이사를 마치고 감사편지를 쓰셨다. 그 편지 속 마지막 말에는 ‘꼭 기

억하겠습니다. 이 따뜻한 손길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우린 같은 마음을 느꼈나보다.

| 함께 성장함으로

이렇게 나는 참여주민의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복지사업을 연계하면서 따듯함을 나누고, 우리 센터만의, 우리 사례관리팀만의 고유한 자활사례관리사업을 구축하는 데 힘써왔다. 그러던 중 참여하였던 ‘강점기반 사례관리 단계별 집단 슈퍼비전’ 교육은 나의 역량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발표한 조울증을 가진 대상자의 사례에 대해 교수님은 “대상자가 말한 욕구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해결되도록 사례관리를 잘하셨어요. 근데 욕구 해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상자의 강점을 펼칠 수 있도록, 미래에 문제 상황에 닥쳤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때요? 사례관리가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라는 슈퍼비전을 주셨다.

이것은 일반 사례관리와 구별되는 자활사례관리의 목표였으며 처음 자활사례관리사로 일을 시작하며 들었던 나의 역할이기도 했다. 하지만 실무를 하면서 점점 참여주민의 욕구를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연계하는 것에 급급했다. 자활사례관리는 자립방해요인 제거뿐만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삼아 자립의 목적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을 간과한 것이다. 이렇게 나 스스로 만들어 낸 틀에 박힌 자활사례관리를 깨뜨리고 보다 열린, 한층 더 성장한 자활사례관리를 해야겠다는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교육이 끝나고 센터로 돌아와 발표했던 사례 대상자와 상담을 했다.

“선생님, 지난 번 인문학 교실 때 보니까 감성도 풍부하시고 글도 잘 쓰시던데, 인문학을 취미로 가져보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제가 무슨... 저 애들 보기 바빠서 안돼요...”

“○○이 상담센터 놀이치료 갈 때 선생님 시간 조금 생기잖아요~ 선생님만의 시간도 갖고, 선생님을 표현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시간이요...? 사실... 하얀 도화지를 갖고 싶긴 했어요. 아무것도 없고, 비운 상태로 저를 채울 수 있는...”

선생님께 취미 생활을 제안했을 때 완강히 부인할거라 생각했는데, 의외의 반응이었다. 아마 자녀를 두고 본인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가 제안하니 죄책감 보다는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이 취미 생활로 대상자가 자립을 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은 들지 않지만, 자신에게 큰 도전과 자립의 시작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심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내가 입사할 때 보았던 우리 센터 표어에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함께 성장함으로’ 라는 말이 더 눈에 들어오고 와 닿는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건 나, 너, 각자가 아닌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성장함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이 자활임을 알게 된다.



입선

나의 인생, 자활로 우뚝 솟아오른다

지종해 부산



| 사회복지의 시작, 인생을 გადა! 자활!

학창시절 다들 나의 미래, 나의 꿈에 대해 적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세계적인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적은 답이었다.

내 나이 스물일곱, 아직 어리다면 어리고, 많다면 많은 나이 나는 자활을 만났다. 처음 자활은 생소하고, 낯설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숨쉬기, 눈치 보기, 자활사업안내 지침서 읽기였다. 나에게 '자활사업안내' 지침은 날 미궁 속으로 빠트리는 마치, 초등학생에게 '수학의 정석' 책을 읽으라고 준 것과 마찬가지였다.

참여자라는 개념과, 자활사업의 목적을 알아갈 때 나는 카페숲1호점, 카페숲2호점, 복지간병사업단을 맡게 되었다. 나이도 어리고, 자활초짜인 내가 오랜 기간 참여하고 있던 참여자들과 어울리기는 녹녹치 않았다. 참여자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나는 아는 것이 없고, 그래서 나는 다시 책을 꺼내 공부하기 시작하였

다. 물론 그 책은 ‘자활사업안내’이며, 나에게서는 ‘수학의 정석’ 같은 책이었다.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점점 참여자에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며 나는 자신감이 붙었고, 참여자와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점점 느슨해져가며,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나의 자활 1년차는 지나가고 있었다. 이때부터 참여자들은 나에게 마음을 열며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 자활에 참여하게 된 계기 등을 이야기해 주었고, 나 또한 사회복지사로서, 자활사업단 담당자로서, 한명의 자활인으로써 내 인생과 열정을 여기에 쏟아 부어도 ‘괜찮겠구나, 행복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였다.

| 새로운 시작 제2의 자활인

자활사업의 2년차인 2018년 10월 우리센터는 인원변동이 생겼다. 이로 인해 짧지만 길었던 카페사업단을 인수인계하고, 나는 또 다른 사업단을 맡게 되었다. 바로 고우니도시락카페사업단과 파일럿사업단인 탑클린세탁 사업단. 고우니도시락카페사업단은 2019년 12월 사업단 3년 도래사업으로 자활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활기업의 창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 해보는 업무에 익숙지 못한 나와, 나만 바라보고 있는 대표님들, 이분들을 위해서 나는 밤새 고민하고, 대표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센터에서 회의하고, 힘들어도 대표님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걸었다. 창업을 준비하는 대표님들과 함께 대구, 거제, 광양 등 사업아이템인 라면 맛집을 찾아다니며 레시피를 수정하고, 발전시키며 하루에 여러 그릇의 라면을 먹었다. 또한 점포 선정은 나에게 많은 좌절과, 고뇌에 빠지게

만들었다. 점포를 정하고, 인테리어 사장님과 인테리어에 대한 미팅까지 완료, 서류 또한 완성직전에 계약하기로 한 점포 주인이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였다. 나의 노력과 참여자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 우리 선택의 기로에 서있었다. 이때 실장님이 나에게 말하셨다. “그래서, 창업 안할 끼가?” 난 이 말에 번뜩 정신을 차리고 낮에는 서류, 밤에는 발품을 팔고 다녔다. 한 곳, 두 곳 부동산을 바꾸어 다니며, 여러 매물을 봤으나 우리가 원하는 장소는 월세, 권리금 등의 이유로 우리가 입점할 수 없는 곳이고, 우리입맛에 맞는 곳은 외지고 유동인구가 없는 곳이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몇 군데를 다녔을까? 몇 번째 건물이지?’라는 생각이 들 때 쯤 아파트와 원룸을 끼고, 300M안에 중학교가 있는 아파트상가가 우리 눈에 들어왔다. 상가를 선택한 뒤는 일사천리였다. ‘입지분석, 소상공인마당의 상권분석 시스템 활용, 주위 유동인구수 파악’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고, 창업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고 위생교육을 받고, 서류가 승인이 났다. 우리 곧바로 상가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창업, 우리 성공하였다. ‘면에빠지다’라는 현판을 달고, 우리 라면전문점을 차렸다. 새로운 업무에 새로운 환경, 자활사업단과 다른 나의 제 2의 자활인생이 시작된 것이었다. 창업 후에도 인테리어, 집기류, 사업자등록증 발부 등 매일같이 현장에 찾아가 인테리어 사장님이 귀찮을 정도로 인테리어를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인테리어 공사 중 지속적으로 라면 또한 발전시켜 나가다 보니 어느새 2020년 새해가 밝고, 1월 3일 우리는 매장을 오픈하였다. 입사 이래 가장 힘들었던 시기이며,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뜻 깊은 날이었다. 대표님도, 나도 추운 겨울이었지만 가장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였다.

| 굳건한 기동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다!

우리의 창업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올라가던 우리에게 내리막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활기업을 알리기도 전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모든 소상공인이 문을 닫거나 피해를 입기 시작하였다. 우리 ‘면에빠지다’ 또한 피할 수는 없었다. 아니, 더욱 큰 피해를 입었다. 기존 고객도, 신규고객도 없었다. 창업을 하면 오픈빨 3개월이라는데, 우리는 그 오픈빨이라는 것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상권 안에 갇혀버렸다.

사스, 메르스처럼 일찍 종식될 줄만 알았던 코로나-19바이러스는 어느덧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우리 여전히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으며, 그럴 때 일수록 나를 채찍질 하고 있다. 내가 무너지면 ‘면에빠지다’와 대표님들 또한 의지할 곳을 잃어버릴 것이다. 굳건한 기동으로, 대표님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다그치며,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는, 누군가 나를 의지한다는 생각과 경험,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가려는 대표님들의 모습들과, 그 과정을 지지해주고, 이루어 주려는 나의 행동하나하나가 나를 한 단계 더욱 성장시켜 나갔다.

코로나-19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유행하며, 손님을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는 힘들지만 ‘면에빠지다’로고가 새겨진 수저세트와 라면용기, 현수막을 제작하여, 이 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격 할인 이벤트를 하였다. 물론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 이따금씩 있던 고객들이 점심시간이 되니 점점 많아지고, 일주일 정도 할인이벤트를 하고, 이렇게 우리의 노력의 결실이 보이는 듯 깜짝 손님이 방문하였다. 부산의 면요리 전문 유튜버 ‘면과장_면요리리뷰TV’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라면을 먹고,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홍보를 해준 것이었다. 면과장이 방문하

고 하루가 지나니 유튜브를 보고 방문하는 고객들이 줄을 지어 몰려왔다. 당일 우린 하루 초대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후 고객들이 ‘면에빠지다’를 인식할 쯤 우린 수저세트와 라면용기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신규고객이 단골고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때 자활기업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대표님, 힘들지만 1,000원만 내립시다.”대표님은 심각한 표정을 짓고는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라고 대답했었다. 우리는 다음날 가격을 내렸고, 점차 단골손님들이 늘어나고, 학생들 또한 많이 가게를 찾아주어 가격을 내린 만큼 고객이 확보되어 우리의 매출은 이전보다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을 비웃듯 코로나-19바이러스는 점차 심각한 상태로 확산되며 우리 부산광역시 또한 코로나-19 대응단계가 2단계, 더 나아가 2.5단계로 상승해 버렸다.

대표님과 우리가 이 시기를 버티는 중 ‘부산광역시자활센터’에서 ‘창업 및 경영지원사업’을 진행한다는 공문이 내려왔다. 대표님과 나는 여기에 희망을 걸어보자고 하였으며, ‘경영지원사업’에 지원을 하고 현재 마케팅 부분을 지원받는 중이다. 자활기업 대표님과 가능성 디자이너 대표님 그리고 나, 우리는 ‘면에빠지다’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나갔으며, 고객을 활용한 광고, 고객이 자연스레 ‘면에빠지다’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가는 중이다. 아마 이 컨설팅이 끝날 때쯤에 ‘면에빠지다’는 고객들과 함께 호흡할 줄 알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만의 마케팅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마치 아기 새가 날개를 펼쳐 날아오르듯.

| 앞으로의, 그 후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저 우리는 스스로 믿고, 의지하며 같이 성장해 나갈 것이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그렇기에 나 또한 자활식구들의 도움으로 성장할 것이고, 나의 성장은 기업 대표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앞으로의 10개월, 또 그 후의 10개월, 모든 자활기업 대표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그 미소가 지워지지 않을 때까지 나는 항상 여기서 대표님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다. 그들의 미소가 나를 미소 짓게 할 때 까지.

입선

자활! 밝은 내일을 꿈꾸는 공동체

이은정 인천



2014년 3월 지역자활센터로의 첫 출근은 나에게서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사회 복지사 자격 취득 준비과정에서 “젊은 사람들과 경력자가 많은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주변인들의 걱정을 뒤로 한 채, 41세의 나에게 사회복지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시작되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과 상담을 진행해나가면서 참여자들의 힘든 삶에 마음이 아파 나는 통통 부은 눈으로 상담실에서 나올 때가 많았다. 입사 초기 펜을 들고 자활사업 지침 숙지 및 업무 파악에만 치중하던 나의 모습이 부끄러웠다.

나는 유년시절 집안형편이 어려워 봉지쌀을 사다먹으며 끼니를 해결하고, 학비걱정을 하며 나름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분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모습이 반성이 되었다. 참여자들의 인생굴곡이 영화같은 소설같은 삶들이 많았다. 자활센터 7년차인 나에게 입사 후 한번도 변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자활사업을 함께 참여하는 마음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기본이고 건강, 정신, 부채, 자녀양육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정말 많았다.

나는 자활 참여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여 소중한 일과 건강한 삶을 양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건강검진지원을 위한 의료기관과 협약 및 부채 해결,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자활참여자들의 자립기반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와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 업체 발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면접지원 등 취업지원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다. 다행히 참여자들이 자립준비를 위한 노력을 함께 잘 해주어, 취업성공 유지자에게 성과금을 지원하는 2018년 인천광역시 “희망잡(job)아!프로젝트 자활사업” 에서 인천시 11개지역자활센터 중 1위를 하는 성과를 얻었다.

나의 매일 아침 출근길에 떠링~ 한통의 문자가 온다. 취업하신 자활참여자가 힘내시라고 좋은 글귀를 메시지로 보내주신다. 퇴근길 “팀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저 이번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사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하며 좋은 소식을 나를 잊지 않고 전해주시는 예전 자활참여자들도 계신다. 자활참여자들이 자립 후 나를 잊지 않고 소소하게 전해주는 일상을 들으며 뿌듯한 마음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다.

2015년 9월...

남루한 점퍼를 입고, 몇 일 제대로 씻지도 못한 느낌의 한 남성분이 상담실

에 들어오셨다. 자활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셨는지 조심스레 여쭙어보았다. “먹고 살기 위해 왔어요.” 하고 무뚝뚝하게 말씀하셨다. “아침식사는 하시고 오셨어요?” 하고 여쭙어 보았더니, “거지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라 끼지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워요.” 하고 무심히 말씀하셨다. 나는 따뜻한 울무차를 한잔 타서 드린 후, 상담을 진행해 나갔다.

자활사업 참여 신청 전에는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여쭙어보았더니, 예전에 토목건축 사업을 하셨다고 한다. 혼자 생활하니 큰 공사가 끝나면 꽤 큰돈이 들어와서 생활에는 어려움 없이 잘 살았다고 하셨다.

집없이 떠돌아다니는 일용근로를 하는 사람들을 집에 데려와 조금이라도 몫돈 마련하여 생활기반이 될 수 있게 많이 도와주면서, 몸은 고되지만 열심히 살아 삶에 보람은 많았었다고 하셨다.

거주하던 집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이주해야 할 상황이 되어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생활할 집을 알아본 후 집으로 돌아와보니,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이 서랍장에 두었던 이주비와 전세보증금과 받아놓은 공사대금까지 모두 사라진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 후 일해놓고 받을 공사대금도 업체에서 결재해주지 않아 토목건축사업도 부도가 나서, 재개발로 이주한 빈집을 돌아다니며 쪽잠을 자며 6여년의 노숙생활을 시작하며 술에만 의지하는 희망 없는 삶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하셨다.

폐지를 주워 간간히 끼니를 때우고, 00공원의 무료급식을 받아 한끼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알코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교회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18개월의 알코올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생

활을 하였다고 하셨다. 퇴원 후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기대감을 안고 사회에 나왔으나 술에 의존하며 노숙생활의 삶이 쳇바퀴처럼 똑같은 삶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먹고 살아가야 하기에 구청에 가서 상담 후 자활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다.

자활센터에 처음 방문하는 오늘 단주에 대한 결심을 하시고 자활센터 문턱을 넘었다고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술 끊을 거예요. 팀장님과 약속하고 싶어요.” 하고 단주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다.

상담실에서 나가는 그 분을 위해 내 책상서랍에 두었던 간식과 두유를 담아드리며 다음 상담을 약속하였다.

다음 방문 시, 오늘 단주 몇 일째라고 말씀하시며 성실함을 보여주셨다. 아는 형님이 일을 하게 되면 보증금 없이 월세 조금 내고 살 수 있는 쪽방을 마련해주실 수 있다고 하였다.

운전을 할 수 있고 힘든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양곡배송하는 일은 어떠시냐고 말씀드렸더니, 힘든 토목건축일을 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한다. 배달 위주의 양곡배송 일을 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재취득하기로 하였다.

의식주 문제, 알코올 문제, 건강문제, 부채 문제 등 자활근로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하였다. 먼저 주거는 지인의 형님댁에 작은 월세를 내면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LH 임대주택 신청을 지원하였다.

알코올 의존 문제는 개별상담 진행 시, 사업단 동료들에게 알코올 중독자의 인식의 우려로 사업단 알코올예방교육 집단프로그램으로 센터에서 지원이 되었

으며, 단주생활 유지 독려를 위해 나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오랫동안 술로 인해 챙기지 못한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외부자원 연계로 지원하였다. 사업단 참여 후 약속한대로 운전면허증 재취득을 하여 운전 업무도 성실히 잘 해나가고 있었다.

예전 지인에게 차를 빌려주어 여기저기 불법주차한 자동차 범칙금 및 부도 후 차량말소등록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동차 세금 체납자가 되어 주소지로 체납금 독촉조지가 오고 있다고 나를 찾아오셨다.

구청에 동행하여 자동차 범칙금 관련 구청 담당자와 상담 후 월 상환으로 도움을 받았으며, 차량말소 등록신고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3월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준비하였으며, 2016년 4월 LH 전세임대에 선정이 되어 드디어 두 다리를 편하게 뻗어 잘 수 있는 작은 집이 생겼다고 기뻐하셨다.

나는 2016년 10월 게이트웨이 사례관리사에서 통장 사례관리사로 새로운 업무로 상담을 진행해나갔다. 자활 참여 후 계획한 경로 설정과 지원해드린대로 자활을 위해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계셨다.

2017년 2월 내일키움통장 압류가 되었다. 예전 노숙생활을 하던 중 지인이 싸인만 하면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다고 하여 따라가서 싸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다단계 판매회사 계약서라는 것을 차후에 알았다고 한다. 물품도 받은 적도 없음을 증명할 수 없어 나는 000님과 압류취소를 위해 업체와 연락을 취해 보았다. 여러차례 상담을 통해 다행히 업체에서는 감면금액으로 분할상환으로 압류취소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2017년 5월 압류취소가 되어 내일키움통장 유

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2017년 가을 000님은 배송사업단에서 자활기업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두렵지만 자활기업 창업에 도전을 해보겠다고 하셨다. 자활기업 창업 후 내일키움통장 지급해지 요건 및 준비에 대해 상세히 상담해나갔다.

2015년 9월 어께가 쳐져 센터에 방문하시던 모습과 달리 “새로운 밝은 내일을 꿈꿀수 있어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셨다.

2018년 3월... 드디어 “가나안 특송”이라는 자활기업의 3명의 공동대표 중 당당한 한명이 되었다. 내일키움통장도 특별중도해지 신청으로 묵돈 마련에 성공하였다.

그 후 희망키움통장1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으며, 성실히 근로를 하며 납입하여 2021년 4월 희망키움통장1 만기준비를 하고 계신다.

얼마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신다고 좋은 소식도 전해 주셨다. 우연히 영화관에서 결혼하실 분을 만났다. 000님은 “전에 이야기 한 우리 센터에서 일하시는 너무 좋은 000팀장님!”이라고 나를 소개시켜 주심에 가슴이 벅찼다.

자활을 준비해서 나가시는 참여자에게 여쭙어본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동안 자활센터가 어떤 공간이었는지... 자활은 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주었고,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었다고 한다.

암담한 과거에서 벗어나 자활사업을 통해 ‘밝은 내일’을 꿈꾸며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하는 바람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오늘도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입선

내 마음에 꽃피네

이해원 광주



사무실 동료의 공모전 수상소식에 축하 꽃다발을 주문하기 위해 퇴근길 수완동 골목길에 파스텔노랑색이 유난히 돋보이는“꽃피네”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늘 그렇게 청초한 모습에 환한 미소로 나를 반겨준다. “팀장님~오셨어요? 볼 때마다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그녀의 상냥한 인사를 들으면 덩달아 입꼬리가 올라가며 기분이 좋아진다. 팀장과 참여주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렇게 꽃가게사장님과 단골 고객으로 다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고영순. 어릴 적 각 반에 한명쯤은 꼭 있었던 흔하디흔한 정겨운 이름. 이름만큼이나 따뜻하고 푸근한 인상의 40대 중반의 그녀는 이제 자활 참여주민이 아닌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다.

그녀와의 인연은 전화한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우미로

근무하다 종료되었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 마침 커피 사업단 “딜라잇가든”에 인원이 한명 필요하던 차였다. 사무실 위치를 알려주며 상담하자고 한지 1시간이 지났을까? 얼마나 급했는지 곧바로 사무실로 찾아온 그녀를 상담실로 안내했다. 상기된 얼굴에 수줍은 표정이었지만 이내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는 그녀의 첫인상은 하얀 찔레꽃 같았다. 흔하지만 소박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예쁜 찔레꽃.

순백의 찔레꽃처럼 보였던 그녀의 삶은 참으로 기구하였다.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던 고영순은 남편의 상습적인 거짓말과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빚만 늘어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선택. 두 아들을 데리고 광주에 내려 오게 되었다. 막상 집을 구하려고 하니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염두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광산구 운수동에 소재한 모자가정 시설인 “우리집”을 알게 되어 그곳에서 3년 간 거주하며 자립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손기술이 좋았던 고영순은 그곳에 있는 동안 국가자격증인 미용사자격증과 화훼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는 동안 사춘기 두 아들이 “우리집” 생활시설에 잘 적응하고 입소규칙을 어긴 적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주어 정서적인 안정을 통해 자격증 공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어주었다. 시설에서도 1년을 더 연장하여 지낼 수 있어 경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었다.

2018년 8월에는 드디어 신촌동 소재 대주아파트 LH전세임대로 이사를 하게 되어 아이들과의 소중한 공간도 마련하여 자신의 꿈에 한 발짝씩 나아가기 시작

했다. 그녀의 꿈은 플라워카페 창업이라고 했다. 그래서 카페사업단에 들어가 커피와 음료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그녀와 상담을 하면서 강한 자립의지를 엿볼 수 있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려는 그 모습에 어떻게 해서든 그 꿈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 고영순의 그러한 노력이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나에게도 다시금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감을 불태울 수 있는 동기부여를 가져다주었다. 커피사업단“달라잇가든”심평원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1층 카페)에서 첫 근무를 시작으로 음료와 커피 레시피를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사례관리 팀장님과 함께 자원연계를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재능기부센터를 통해 고등학생 둘째아들의 공부방 만들기를 시작으로 바리스타자격증 취득을 위해 커피재료 온라인판매와 바리스타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이루다카페 창업연구소”대표님과 의논하여 2급 자격증 과정을 본인부담금 없이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고영순은 일과를 마치고 저녁시간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열심히 자격증 과정을 공부하였고 2개월의 과정을 거치며 바리스타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자격증을 손에 들고 센터 사무실로 뛰어오며 환하게 웃는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고영순은 이게 모두 팀장님 덕분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자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노력의 결과였다.

그녀가 심평원 카페에서 근무한 이후 카페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평

소 무표정한 참여자들 사이에 밝은 웃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그녀 덕분에 고객들로부터 친절한 바리스타라는 입소문이 전해지고 함께 일하는 다른 참여주민들도 그녀의 친절함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자활참여주민에게 있어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생활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다.

어느 날 카페벽면에 예쁜 손글씨와 함께 드라이플라워 꽃다발을 만들어 예쁘게 걸어둔 소품을 보고 누가 만들었는지 물어보니 역시나 그녀의 작품이었다. 손글씨는 특별히 배운 적은 없다고 하는데 조금만 다듬으면 훨씬 더 나은 거란 생각이 들었다. 광산구에서 무료로 캘리그래피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수소문 한 끝에 송정도서관에서 무료 강의를 진행한다고 하여 직장인 반을 추천해 보았다. 나중에 플라워 카페를 운영할 때 예쁜 손글씨로 축하카드를 직접 만들면 훨씬 돋보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제안도 흔쾌히 받아들여 바쁜 와중에도 틈틈히 도서관에 다니며 자격증을 취득 했고 그녀의 손글씨는 배우기 전과 배우고 난 후 확연히 달라졌다. 손재주가 남달라 어디에 내놔도 빛이 나는 보석 같은 그녀였다. 자활에 계속 근무하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인재처럼 느껴질 즈음 갑자기 그녀는 상담을 요청해 왔다. 자활에서 1년 정도 더 있으면서 창업을 꿈꾸던 그 때 예전에 화훼기능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다녔던 꽃매장이 임대가 나왔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이다. 그동안 틈틈이 시간을 내어 자격증을 취득하고 창업 준비를 해 온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여 당장 그녀와 함께 매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가게는 별이 잘 드는 남향이라 화분의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았고 아주 깨끗하고 정갈하게 정돈이 잘되어 있었다. 사장님을 만나 그녀의 사정을 말하고 권리금 삼백만원을 인하 하였다.

창업자금이 가장 문제였는데 다행히 자활근로를 시작하면서 내일키움통장을 가입해둔 것이 22개월이 되어 4백 만원 가량 지급이 가능했고 창업으로 지급해지 요건이 충족되어 받은 지원금을 종자돈으로 요긴하게 사용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창업자금 대출을 알아보았고 마침내 일정금액의 대출을 받아 꽃 매장을 인수할 수 있었다.

커피머신기와 그라인더, 제빙기는 거래처와 상의하였더니 고맙게도 기계원가만으로 구매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3개월 간 원두는 무료로 제공해주시겠다고 약속하였다.

센터와 심평원 내 직원들은 새로운 삶을 찾아 용기있게 떠나는 그녀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자활사업을 탈피한 것만으로도 굉장한 용기이고 스스로의 자립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나는 종종 꽃을 주문할 일이 있거나 주변에서 축하화분을 보낼 일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꽃피네”를 추천하곤 한다. 한번이라도 그곳에서 꽃을 구매해 본 사람들은 안다. 그녀의 손에서 작품으로 환생하는 꽃들의 조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숨씨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자신 있게 추천한다. 심평원 직원들 또한 화분이나 꽃다발이 필요할 때 “꽃피네”가게를 애용한다고 하니 괜시리 고마울 지경이다.

작년 11월 30일자로 자활사업을 종료한지 벌써 1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도 매장을 유지하고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매장에 들 때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려주는 그녀. 따뜻한 커피만큼이나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는 그녀. 많

이 힘들텐데 그런 내색은 한 번도 하지 않는다. 지금은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 징징거리지도 못한다고 하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 그래도 행복하다고 한다.

“좋아질 날이 있겠죠. 내 마음에 꽃피는 날이 있겠죠.”하며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는 그녀를 위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지역자활센터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급여,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등 종합적인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자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주세요.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129)

자활에세이 18번째 이야기
한걸음씩 더 나아가는 나의 꿈

발 행 일 | 2020년 12월

발 행 처 |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_ 02.3415.6900

인 쇄 처 | 꿈인디자인 _ 02.878.0610

〈비매품〉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